6

동창회보 2012년 봄호 VOL.10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Contents

03 동창회 소식

04 동창회장이 전하는 동창회 소식

06 임원이사 소개

08 특집 01 제10회 안행대상

12 특집 02 30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HOME-COMING

14 ISSUE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이름을 올린 자랑스러운 동문들

 16
 ISSUE 2

 경북의대를 드높인 퇴임교수 조명

17 ISSUE 3 젊은 재미지부 동문들

20 동문탐방 장년부 이재욱(37회) 동문 청년부 허달영(51회) 동문

24 특별기고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영호영상연구실

26 학교 소식

28 병원 소식

32 지부 소식

34 동기회 소식

41 개인동정

44 ISSUE PEOPLE

45 회원문예

59 특별문예

60 추모사

68 경조사

70 동문이 펴낸 책







2012 봄호

통권 제104호 / 발행인 동창회장 변영우 / 편집인 공보이사 김인겸 / 발행일 2012년 5월 31일 편집대행 e-포럼 TEL (053)744-8416 FAX (053)744-8418 e-mail aza100@paran.com

동창회 소식

2011

제7차 상임이사회	2011년 10월 4일	변영우 외 10명	등반대회 준비 및 안 <mark>행대상 공고 확인</mark>
제8차 상임이사회	2011년 11월 1일	변영우 외 14명	동창회비 징수건 논의
제9차 상임이사회	2011년 11월 26일	변영우 외 15명	정기총회 날짜
			1인 1계좌 기념품 제 <mark>작에 관한 논의</mark>
제10차 상임이사회	2012년 1월 10일	변영우 외 13명	회비 납부율을 높일 <mark>수 있는 방법 강구</mark>
제11차 상임이사회	2012년 2월 7일	변영우 외 12명	정기총회 및 안행대 <mark>상 준비</mark>
2012			
제1차 상임이사회	2012년 4월 3일	변영우 외 21명	신임이사 임명장 <mark>수여식,</mark> 테니스대회 준비
제2차 상임이사회	2012년 5월 7일	변영우 외 18명	테니스대회 보고 및 <mark>행운의 밤 준비</mark>

제10회 안행대상 시상식

제10회 안행대상에서는 학술연구 부문에 김익동(19회) 동문,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에 이철상(27회) 동문이 수상자의 자리에 올랐다. 2012년 2월 23일 모교에서 진행된 제10회 안행대상 시상식에서는 수상자 시상과 더불어 모교 앞에 설치된 안행대상 조형물에 이름을 새기는 각명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동창저서 전시회 광고

지난 2011년 5월 25일~28일 개최한 개교기념 제9차 동창저서 전시회를 성황리에 잘 마치고 2012년 5월, 제10회 전시회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동창들의 소장 신구저서 등 귀중한 저서 및 관련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동창회, 안행수필동인회, 지역의역사연구회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 모교의 귀중한 자료가 소실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10여 년 동안 모은모교의 중요한 동창저서 등의 자료가 5천여 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모교의 발전상 역사적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며 후학들의 교육과 학술연구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모교의 배려로 본관 2층서편 다용도 제2교수회의실의 서책보관함에 저장하면서 개선된 전시를하게 되었고 전재미동창회장 정근영(34회) 동문의 100불과 김재식(28회) 동문의 액자기증으로 보수하여 다시 제작한 명문의 교시와 인술보



제9차 동창저서 전시회 모습



인술보은서예 액자 2점

은서예 액자 2점을 우측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고정전시가 가능한 전용전시장 마련입니다. 동창들의 저서기증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동창회사무실 053)420-4981. 김재식 명예교수실 053)420-4986. 016-876-2237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창회장 변영우



존경하는 동창회원 여러분.

우리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고색창연한 의대 캠퍼스에도 5월의 푸르름이 펼쳐졌습니다. 그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지요?

지난 2월 동창회 총회에서 제가 26대 회장으로 다시 한 번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연임하게 된 것은 주위의 강권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 자원하였습니다. 내년이, 1923년 자혜의원 내의 대구의학강습소를 개설한 지 90주년으로 그 행사준비가 지대하고 칠곡 모교 신축공사는 물론 장학금 확충 그리고 동창회 운영과 조직을 탈바꿈하기 위한 사명감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소임을 맡고나니 어깨가무겁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유능하신 부회장과 이사의 숫자를 늘렸으며, 제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유능하고 활동력 있는 동문들을 많이 등용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동창회보 발간을 연2회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모교의 최고 영예인 안행대상 수상자로는 학술연구 부문에 김익동(19회) 명예교수님, 사회공헌 의료봉사 부문에는 이철상(27회) 원장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영광스런 두 분의 이름을 교정의 기념조형물에 각명하였고, 총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드리며 수상을 축하하였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요, 귀감이 되신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반면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김집 전임 동창회장님과 문세광 전임 파티마병원 의무원장님 등 여러분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54회가, 모교를 방문하고 은사님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등, 25주년 home coming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몇 번이나 시도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던 50주년 home coming 행사를 30회(회장 소원영) 선배님들께서 처음으로 알차게 이루어내셨습니다. 30회 대선배님 들께서는 성공적인 행사는 물론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도 많이 내셨으며, 특히 김도상, 신은식 두 분 선배님께서 큰 장학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주년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동문님들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기에 올해는 재학생들에게 2억 원(5백만 원씩 40명) 의 거금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올해는 1인 1계좌와 장학기금 배가운 동을 펼쳐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에 개최된 의협대의원 총회에서 제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에, 이창 부회장이 의협 감사에 선출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의사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 봄호 | 5

제26대 경북의대 동창회 임원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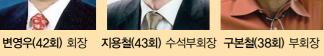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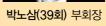












백운이(44회) 부회장







황보경(45회) 부회장









유완식(45회) 부회장



















백승찬(52회) 부회장

2012년 3월 1일, 제26대 경북의대 동창회 임원이사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2014년 2월 말까지 2년간의 임기동안 경북 의대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임원이사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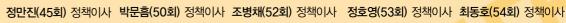


















<u>김철수(42회)</u> 감사

김종서(49회) 부회장 **송중원(49회)** 부회장

박상운(51회) 부회장



곽동협(52회) 부회장



6 | 동창회보 2012 봄호 | 7

別10회

안행대상은 평생을 의학술연구와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창회원을 헌정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2012년 2월 23일에 열린 제10회 안행대상 시상식에서는 학술연구 부문 김익동(19회) 동문,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에는 이철상(27회) 동문이 수상하여 동문들과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안행대상 시상식과 함께 모교 교정에 설치된 안행대상 조형물에 이름을 새기는 각명식도 거행되었다.

제10회 안행대상 심사위원단

이상계(28회) 동문, 조세환(30회) 동문, 이원순(35회) 동문, 김징균(40회) 동문, 이상범(41회) 동문, 변영우(42회) 동문, 지용철(43회) 동문, 백운이(44회) 동문, 이창(46회) 동문, 채성철(48회) 동문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

김익동(19회) 동문

제10회 안행대상 학술연구 부문에는 김익동(19회) 동문이 선정되었다. 평생을 정형외과학 분야의 학술연구에 몰두, 후학양성에 헌신한 그는 수부외과 분야에서 큰업적을 남겨 의료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안행대상 심사위원회는 2012년 학술연구 부문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하고 평생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후학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전체 경북의대 동문의이름으로 시상하였다.

연구업적

김익동 동문은 1960년 Nature에 보고한 대퇴골의 혈액순환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약 200여 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모교 정형외과학 교실에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학술 활동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특히 수부외과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2010년 세계수부외 과학회에서 수여하는 Pioneers of Hand Surgery에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환자에 대한 수술법을 개발하여 나환자의 치료와 복지에도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기간	학력 및 주요 경력
1947~1951	대구의과대학 졸업
1954~1955	미국 Arizona 주 St.Joseph병원 인턴
1955~1958	미국 Pittsburg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전공연구원
1958~1959	미국 Pittsburg St.Francis병원 레지던트
1960~1971	대구 동산기독병원 정형외과장
1971~1990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수
1980~1982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4대 학장
1986~1988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3대 원장
1988~1990	경북대학교 대학원 13대 원장
1990~1994	경북대학교 12대 총장

학술활동

1967~1969	국제장애자 재활협회 나분과위원(구주)
1982~1983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장
1989~1991	대한수부학회 학회장
1991~현재	한국의학회 고문
1992~현재	대한나관리협회 고문

주요포상

1986	국민훈장 동백장
1994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0	세계 손의 외과 pioneer(세계수부외과학회)
2011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한국의학원)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 수상자

이철상(27회) 동문

2012년 안행대상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은 이철상(27회) 동문이 수상하였다. 이철상 동문은 오랜시간 동안 YMCA와 국제와이즈맨클럽을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봉사 및 사회복지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에 경북의대 동창회 안행대상 심사위원회는 2012년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부문의 자랑스러운 동창으로 선정하고 평생의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후학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시상하였다.

활동내용

대구지역에서 개원한 내과전문의로 YMCA, 국제와이즈맨클럽 등 국내외로 다양한 의료봉사 및 사회복지단체 활동을 해왔다. 특히 나환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국내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및 지원에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헌신하여 사회정의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회 대표이사로서 20여 년간 가정지원사업과 지역복지사업을 위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계에 타의 귀감이 되었으며 대경시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기간	학력 및 주요 경력
1953~1966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및 석박사 졸업
1967~1972	대구 동산병원 근무
1972~현재	이철상 내과(현, 대한내과의원) 개원
1974~1982	대구YMCA 의료봉사단 활동 실행위원 및 봉사단 활동
1994~1997	대구애락원장 및 대구애락보건병원장
1996~1997	국제와이즈맨 아세아지역 총재
1991~현재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대표이사
2003~현재	대경시니어포럼 공동대표

주요포상

2005. 5. 15	국민훈장 동백장
2008. 9. 20	대구 YMCA 공로패

30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HOME-COMING



• • • • 그렇게도 우리가 원하던 졸업 50주년 기 념 모교방문이 2012년 5월 10일 오후 5시에 우리 가 공부하던 모교에서 열렸습니다. 30회 동기회 로 보면 가장 큰 역사적인 행사라고 자부하는 졸 업 50주년 모교방문이 성대히 열렸던 것을 감개 무량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16회. 18 회. 24회 선배님들이 50주년 행사를 하셨지만 그 간 뜸했던 자리를 우리 30회가 메워서 성사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 25주년

때는 당시 제가 회장으로 있었지만 행사를 쉽게 하였는데 이번 졸업 50주년 모교방문은 정말 어 려운 고비를 넘겨야했습니다. 제가 총무시절부터 작년 회장으로 있을 때까지 2년 동안 매달 기금도 모으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모두가 노령이라 저 회장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준비위원회를 구 성하고 전권을 30회 이화회모임에서 소원영 준비 위원장에게 넘겼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 이 같이 수고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



원영 준비위원장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 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잘 견디시고 희생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 니다. 회장단(회장 김병화, 총무 강창수)의 수고 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큰 고생했다. 고 우선 큰 칭찬을 보냅니다.

모교방문 때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과 대구 · 경북 그리고 서울과 대전에서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을 남보다 먼 저 배웠기에 e-mail을 통해 자주 연락하여 아무 리 먼 곳도 쉽게 연락할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 거의 2년 반 준비를 하는 중에 간혹은 동기들로 부터 욕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모교방문 행사가 막상 끝나고 보니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훗날 제주도 여행을 하는 데는 이웅길 준비위원 과 이웅길 동기의 사모님이 전담을 했으며 무사 히 좋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두 분에게 아주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만들었지만 아직 피로가 안 풀려 못보고 있습니다. 차차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추억을 남기고 왔지요.

모교에 낸 성금도 너무 적어 미안합니다만은 모 두가 노령이고 개업을 포기한 동기도 많고 병마 에 시달리고 있는 동기도 있어 이 금액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들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동창회 장학기금은 저(김도상)도 조금 내고 신은식 동기도 냈습니다. 부끄럽고 쑥스럽습니 다. 학교에서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심정에서 낸 것으로 이해를 부탁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멋진 여행을 하고 왔고 자축연도 조금은 우아하게 했고 우의를 더 두텁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준비하는 2년 반을 못기다리고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과 불편한 병고 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동기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남은 우리들도 건강 조심 해서 5년마다 자체 행사를 하고 100세를 전후해 서 졸업 75주년 모교방문을 꼭 하도록 약속을 다 짐해봅니다. 30회 동기생 만세를 외치면서 이 글 을 줄입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이름을 올린 자랑스러운 동문들

2012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회원이 된 모교 동문들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에 창립된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자 단체로 회원이 되기 위해선 의 학 및 의학관련 분야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 학 술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분 야 학회의 추천, 평의회 심사, 총회 선출 등의 과정 을 거쳐야 하며 현재 300여 명의 정회원만이 활동하 는 우수한 의학 단체입니다. 2012년 한림원에서는 29명의 정회원을 선출하였고, 그중 모교출신은 4명 입니다. 경북의대는 기존 9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 었으며 4명이 추가되어 총 13명이 되었습니다.

한림원에 이름을 올린 경북의대 동문들

29회	김두희	동문(창립회원,	원로회위원
-----	-----	----------	-------

33회 **권광보** 동문(창립회원)

37회 **강복수** 동문

38회 박정한 동문(창립회원)

39회 김세철 동문(창립회원)

41회 김시열 동문

41회 김현철 동문

42회 조동택 동문(창립회원)

44회 백운이 동문

•• 2012년 선출된 경북의대 동문들 소개



이인규(50회) 동문

1976년 입학한 이인규 동문은 1982년 졸업 후, 석박사를 모두 모교에서 마쳤다. 1987년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조슬린 당뇨병센터에서 Clinical fellow를, 1994년 다시 같은 곳에서 Research fellow를 하고 돌아왔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장을 거쳐 2005년도에 경북대학교 내분비내과로 자리를 옮겨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분비내과 분과장, 2012년 2월 말까지는 내과 과

장을 역임하였다. 2006년 국가지정연구실 사업(NRL사업)을 수주 받아 2011년까지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고 같은 해 다시 도약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을 맡아 계속적으로 국가지정연구실사업(도약연구)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단의 단장과 대사질환및 노화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인규 동문은 지난해 10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에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27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차세대 신약 개발과 임상 연구 중에 있다. 대외적으로 HT포럼 임상중개연구분과위원회 위원, 대구산업전략기획단 임원, 대구테크노파크 기술지원 자문위원,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Journal of Diabetes Investigation의 Associated Editor,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DMJ),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EMM)지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김신윤(51회) 동문

51회 졸업생인 김신윤 동문은 현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 교실 주임교수와 정형외과 과장, 의료정책 연구단장, 진료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 의대 병원 근골격계 연구센터에서 펠로우십을 마쳤다. 학교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한 고관절학회 평의원, 편집위원장, CIOS(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편집위원장을 역임

하였다. 김신윤 동문은 국가자문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보건복지부 HT 운영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해·재난 민간 특별위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근골격계 유전체 연구센터장 역임, 차세대 유전체 사업 골다공증 중개연구 책임자, 보건복지부 선도형 연구사업 14세부 연구책임자를 맡아 활동했으며, 2010년 경북대학교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김신윤 동문의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진단 칩 개발 연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재용(52회) 동문

박재용 동문은 1984년 졸업 후 1995년 영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임강사로 임명되었으며, 1995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흉부종양센터에서 방문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동 교실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BK21 사업단 단장과 대구 경북지역암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폐암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관한 연구로

제1회 한국암연구재단학술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상, 개교 60주년 기념 경북대학교학술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수여하는 화이자의학상, 2011년에는 한국암연구재 단에서 수여하는 보령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국제폐암학회지인 Lung Cancer지와 Open Lung Cancer지 편집위원, 대한암학회지 편집위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 폐암 맞춤진단 및 표적치료연구단과 암진단상용화사업단 단장,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으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전상훈(52회) 동문

1984년 모교를 졸업한 전상훈 동문은 계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9년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전공의를 수료했다. 199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전임강사로 임명된 그는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01년 대구가 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흉부외과학교실 부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2003년 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부교수, 2007년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일

본 동경의과대학교 외과 객원교수도 겸임하고 있다.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폐센터장, 의료기 기임상시험센터장, 흉부외과장, 홍보대외정책실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광역학회 학술이사, 대한 흉부외과학회 심사위원장, 아시아흉강경수술교육단(ATEP) 회장 등 활발한 학회활동도 보이고 있다.

I S S U E 02

경북의대를 드높인

퇴임교수 조명

오랜시간 의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동문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1년 퇴임식을 갖고 교수의 자리를 물러나 또 다른 삶을 살고있는 퇴임교수를 조명해봅니다.



윤성도(38회) 동문

동산의료원 병원장을 역임한 윤성도 동문은 1979년부터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동산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주임교수, 교학부장을 역임하고 2001년 동산병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동산의료원 교수시절부터 해외의료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 네팔을 비롯한 30여 개국으로 해외의료봉사의 경험이 있으며, 동산의료원에서 '네팔사랑'이라는 교직원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여 네팔근로자들을 위한 의료, 장학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가졌다. 윤

동문은 문학에도 그 관심이 지대하여 1984년 시로 등단을 한 시인이기도 하다. 2011년 8월 퇴임식 후 현재는 시창작에 전념하고 있으며 4번째 시집인 '고통과 함께 잠들다' (만인사)를 출간하였다.



강덕식(39회) 동문

강덕식 동문은 1975년 미국으로 떠나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으며 1977년부터 1980년까지 2년간 시카고에 자리한 Cook County Hospital에서 진단방사선 수련을 마치고 미국전문의 자격을 땄다. 귀국 후 경북대학교병원의 조교수로 채용되었다. 강 동문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삼남 흉부영상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그 외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대한의학교육학회 PBL 연구회 회

장, 경북대학교병원 사명, 비전, 교육목표 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병원 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04년에는 영남 CEO Steven Covey 7 Habits 과정, 2009년에는 부산대학교 의료경영최고관리 자과정을 수료하여 현재까지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다.



김세철(39회) 동문

김세철 동문은 1971년 졸업하고, 1980년 중앙대 비뇨기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수, 교수를 거쳐 1996년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남성의학의 역사'로 정평이 난 남성의학 개척자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행복한 성(性) 이야기를 전하는 '건강한 성 전도사'로 유명하다. 김세철 동문은 중앙대 의과대학에서 교수 퇴직 후, 현재 관동의대 명지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성학회 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성의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국제성의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Sexual Medicine'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의료QA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젊은 재미지부 동문들

우리 동문 중에는 일찍이 도미하여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재미동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재미지부 동문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Clinical Biochemist 전문의 손건영(48회) 동문

1980년 졸업 후 모교 생화학교실에서 근무를 하던 손건영 동문은 해외에서 의학을 펼칠 것을 결심하고 1998년 네팔로 떠났다. 네팔의 Tribhuvan University 의과대학 교수로 2002년 6월까지 재직, 2004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Kathmandu University 의과대학 교수로 타지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2008년 9월부터는 캐나다로 자리를 옮겨

캐나다 헤밀턴의 McMaster University에서 임상생화학 postdoc연수를 받고, Canadian Academy of Clinical Biochemistry의 Fellow 자격을 받았다. 현재는 Ontario 주의 Mississauga(Toronto 공항이 있는 도시) 에 있는 Credit Valley Hospital과 Trillium Health Center의 Clinical Biochemist로 일하고 있고, 동시에 University of Toronto의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 Pathobiology의 Faculty로서 학생들의 생화학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다.



연락처: kysohn48@gmail.com

미국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숙(60회) 동문

김미숙 동문은 대구가톨릭병원 산부인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다 뜻한 바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2005년 7월에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뉴욕 플러싱병원에서 4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2009년 7월에 졸업하자마자 노던버지니아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하였다.

김 동문은 성실함과 실력으로 미국 전역에서 의사들이 가장 정착하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인 노던버지니아에서 성공한 의사이다. 김미숙 동문은 지역 내 attending hospital(Fairfax hospital)의 의사 200명 중 환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5% 이내의 전문의로 손꼽힐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노던버지니아에서 김미숙산부인과를 3년째 유영하고 있다.

연락처: misuknewyork@gmail.com



미국 내과 전문의 이영직(60회) 동문

이영직 동문은 1996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Wayne State Medical School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다. 이후 University of Michigan의 Pulmonary fellowship을 거쳐서 2003년부터 Los Angeles에서 내과(호흡기 내과) 개업을 하고 있다. 환자진료 이외에도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에서 Governing Board(병원 내 이사

회)를 맡고 있고, Good Samaritan Hospital에서는 Medical Executive Commitee(병원 내 Policy와 proceedings를 결정하는 기구)를 겸하고 있다. 2007년에는 LA 지역 의사들을 중심으로 만든 LA Medical

Imaging Center, LLC의 CEO를 역임했다. 작년에는 「나의 주치의」란 이름으로 한인환자들을 위한 건강서적을 출판했고 건강도움 웹사이트 (www.seepcp.com)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 이순기 씨 역시 카이저 병원에서 hemato-oncologist(혈액암 전문의)로 재직 중이며, 슬하에 아들 선우(14세)와 딸소라(12세) 남매를 두고 있다.

소라(12세) 남매를 두고 있다. 연락처 : ylee92@hotmail.com



미국 내과 전문의 권영훈(67회) 동문

권영훈 동문은 1999년 졸업과 동시에 공보의 생활을 마치고 수련을 위해 도미했다. MCP Hahnemann University(현 Drexel 의대, Philadelphia 소재)에서 internal medicine 수련 후 critical care medicine으로 잘 알려진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critical care fellowship을 마쳤다. University of Minnesota cardiovascular division 소속으로 resuscitation관련 NIH research fellowship 과정 중에 있고 곧 clinical cardiology fellowship을 같은 곳에서 시작하게 된다. clinical research 전공으로 석사 과정 또한 동대학교에서 밟고 있다. 2011년부터는 University of Minnesota physician 소속 ICU staff와 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 소속 sleep medicine staff로 참여하고 있으며, St. Paul 소재 National Brain Aneurysm Center(HealthEast Care System)에서 neurocritical care attending physician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호수와 추운 겨울로 알려진 중서부 Minnesota 주의 Twin city(Minneapolis-St. Paul)에 살고 있으며,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family medicine을 수련 중인 부인과 3명의 자녀 뒷바라지를 함께 하며 여러모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연락처: Kwonx208@umn.edu, youngkwonmd@yahoo.com

미국 내과 전문의 우상훈(68회) 동문

우상훈 동문은 2000년도에 미국에 건너가 듀크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과 스탠퍼드의대에서 신장내과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현재 스탠퍼드의대 내과에 근무하고 있다. 우상훈 동문은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여러 행정 일을 맡고 있으며 대학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내과 및 병원 전체의 피어리뷰(peer review)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병원 진료, 행정과 함께 신장질환의 유전체학(genomics)과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도 병행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의 의료산업 및 인터넷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우동문은 현재 부인 정수연 씨와 슬하에 딸 지나와 아들 지훈과 미석을 두고 있다.

연락처: swoo1@stanford.edu



미국 내과 전문의 채진병(68회) 동문

채진병 동문은 2000년도에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와 인턴 수련후 2005년 도미, New Jersey에 있는 Englewood Medical Center에서 3년간 내과 수련을 마쳤다. 현재는 Massachusetts에 있는 Metrowest Medical Center에서 내과 attending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레지던트 teaching을 함께 하고 있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한다. 채 동문이 근무 중인 병원은 Framingham과 Natick 두 도시에 있으며, Resident 수련병원으로 각 년차에 약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채진병 동문은 부인 최수경 씨와의 사이에 2달 된 쌍둥이 남매 희준과 희진을 두고 있다.



연락처: chaejb75@gmail.com

미국 내과 전문의 유지현(71회) 동5

유지현 동문은 2003년 2월 졸업 후, 미국에서 수련하고 싶다는 의지로 도미행을 준비했다. 2004년 7월 Chicago에 있는 Advocate Illinois Masonic Medical Center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였고,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Portland Oregon에 있는 Providence Willamette Falls Hospital에서 Hospitalist로 근무 중이다.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건너간 유 동문은 미국 내과 전문의로 자리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의학의 길을 걷고 있다.

연락처: jihyoo12@yahoo.com

이민 1세대로 성공적 결실을 맺은

이재욱(37회) 동문

이번 호 동문탐방 장년부의 주인공은 이재욱 선생님이시다. 이민 1세대로 미국에서 성공하시어 많은 재미동문들에게 귀 감이 되고 있는 동문이다. 글 · 취재 _ 김인겸 공보이사



선생님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에 자리 잡기까지 이력을 들려주십시오.

나는 1969년, 37회로 의대를 졸업하고 제대 후 대구 동산기독병원에서 근무 중 1973년 6월 미국 뉴욕으로 들어왔습니다. 뉴욕시 Flushing, N.Y.에서 인턴 근무를 마치고 Long Island, N.Y.에서 정신과전문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그 후 1977년 6월에 Ohio 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 들어올 때는 전문의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요. 제가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벌써 39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네요.

지금까지 V.A. Hospital,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Private Practice 등을 거쳐서, 지금은 Columbus, Ohio에 있는 Columbus Area Mental Health Center에서 1992년부터 Medical Directo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1969년 설립된 Psychiatric Outpatient Clinic 입니다. 의사는 4명, 간호사는 7명, 그 외 직원들 약 170명이 일하는 곳입니다. 현재도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딸 둘, 아들 하나 다 결혼했고 손녀 둘, 손자 하나가 있고 San Francisco, Boston, University of Wyoming이 있는 Laramie, WY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건너 오셔서 이민 1세로 성공하기까지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낯설고 물 설은 미국에 와서 생활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사로 왔기 때문에 항상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경북의대와 미국사회에 감사해야겠지요. 한번은 한국에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미 일주일 이상 여행 중이라 그동안 밀린 속옷 빨래를 해주었더니 그것이 정말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국 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접을 잘 해줍니다. 또 오래 전 우리가 뉴욕 살때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면서 전화가 와서 저녁 대접할 겸 만나러 나갔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친구가 아니더군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와많이 친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전화해주면 너무 반갑습니다. 미국 생활이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으나 주위에 친구. 가족. 형제들이 많이 없으니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지요.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느 과보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신과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문과 계통을 좋아해서 정치, 외교, 역사, 지리 이런 방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외교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버님께서 내가 정치가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지요. 아버님 소원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가 다른 과보다는 문과에 가까우니 아마 정신과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의사가 될 계획도 없었고 더욱이 정신과 의사가 될 계획은 정말 없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등 이런 방면을 좋아하지 않았고 머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적응력이 좋은 편이고 노력파인가 봅니다. 처음에는 정신과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또 환자도 오래 볼 수 있고요.

재미동창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한인회 등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한글학교 교장도 했으나 지금은 젊은 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미주 경북의대 동창회에서도 총무,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콜럼버스 주위에 사는 의사들 모임에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년에 3번 만나서 골프도 치고 환담도 나누는 친목 단체입니다. 주로 회원들이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이고 지방의대는 나 한 사람뿐입니다. 인생관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주위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또 모든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 생활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 생활과 개인 생활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오피스와 병원을 나서면 병원과 환자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개인 생활에 집중하면서 운동, 여행 등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내과의의 자존심

허달영(51회) 동문

이번 호 청년부 탐방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 허내과의원장이신 허달영 선생님이시다. 선생님께서는 학생 시절 연극배우로 유명하셨는데, 지금은 마라톤과 철인3종 경기를 즐기신다고 한다 글 · 취재 김인겸 공보이사



안녕하십니까? 창원에서 개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 시절엔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남학생들은 몇 주간 실제 군에 입대해서 병영훈련이란 걸 받았었지요. 당시 대구 50사단이 수용한계를 넘어서인지 우리 의예과와 사범대 일부 학생들은 창원 39사단까지 와서 훈련을 받았었지요. 전혀 뜻밖에 창원 39사단에서 마지막 군의관 근무를 하게 된 게 단초가되었지요. 아무도 아는 이 없을 줄 알았던 이곳에, 내 최고의 절친 동기가 지금은 창원과 통합된 마산에 미리 와 있었고, 클럽선배도 있었지요. 나는 서울에서 수련하였기에 제대 후에는 서울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항상 아껴주고 베풀어 준 친구와 선배들과의 정이 내가 창원에서 개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지요.

학생 때 연극반 활동하면서 '부정병동'의 주인공으로서 배우의 자질도 유감없이 보여 주셨는데, 요즘 어떤 문화활동을 하시고 계신가요?

대학 때 의대연극반에서 3편 정도 무대에 섰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난 문학, 예술, 연극 따위엔 별 관심도 재주도 없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던 중 연극반 인원이 모자라 무대장치, 조명을 도와주러 연극

반에 드나들다 보니 어느새 연극반원이 되었고 무대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설펐고 없는 시간 쪼개내느라 힘들었지만, 그나마 막걸리 마시며 7080이나 불러대던 내게 남겨준 유일한 문화예술 활동이자 추억으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 창원에도 Art center가 두 곳이 있어 문화행사가 일년 내내 이어집니다. 볼만한 게 있나 인터넷 검색도 하고 집사람 손잡고 한 번씩 마음에 영양 보충하러 가는데 만족합니다. 40대 들어 담배를 끊으려고 극약처방으로 철인3종을 시작했었습니다. 6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 9회, 아이언맨 코리아 4회 완주했습니다. 문학, 예술보다는 운동을 좋아해서 한동안 푹 빠졌었는데 너무 무리했는지 관절이 안 좋아 요즈음은 둘레길 탐방을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창원지역 동문회는 관심 있는 선후배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동창회 와의 공감이나 사업동참에서는 한참 미흡합니다. 동문 각자 스스로의 동문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거고 동창회는 그런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회장님을 비롯하여 앞에서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 개발에 고생하시는 집행부께 감사하고, 그만큼 동문들의 반응들이 크게 되돌아 왔으면 합니다. 수년 전 본부동창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성행 교수님을 비롯한 퇴임하신 선배님들께서 여러분 참석하셔서 현직에 있는 젊은 우리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고뇌에 찬 의견을 토로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한편 부끄러웠습니다. 학창시절 아련한 한조각의 추억이 있다면 동창회를 위한 관심으로 승화시켜보심이 어떨지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개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은 걸 준비해야겠지만 제 경험으로 첫째는 사람이니까 환자를 대하는 기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진솔되게 그리고 자신이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나머지 마인드는 저절로 잘 될 겁니다. 마음을 베풀어야 환자들도 공감되고 그러면 환자들도 많아지고 더 베풀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의학적인 지식을 upgrade하면서 각 질환별로 매뉴얼을 잘 만들고 환자들에게 잘 적용토록 공부해야겠지요. 여러 학회 홈페이지를 시간이 되면 기웃거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다음엔 의료 환경이 급변하니까 몇 년 앞을 항상 내다보고 자신을 upgrade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함 것 같습니다.

끝으로 멀리 있다 보니 동기회에 참석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동기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소중한 시간들, 동기, 동문 모든 분께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동창회도 풍 성한 한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22 | 동창희보

김연호(22회) 동문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경북대학교 영상의학교실 연호영상연구실



글 _ **강덕식(39회)** 동문

창회 선배이자 재미동문이신 김연호(22회) 박사님께서 1992년 경북의대 진단 방사선과학교실(현 영상의학교실)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2만 불을 경북대에 기부하셨다. 당시 교실 주임이었던 강덕식 교수는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전체 교수회의 에서 기부하신 발전기금을 의학영상연구에 사용하고 의학영상연구소 내에 김연호 선 생님의 함자를 따서 '연호영상연구실'을 두기로 의결하였으며 개소기념 심포지움도 개최하였다.

당시 기부하신 2만 불은 의학영상연구를 위한 workstation 2대와 영상처리용 전문소프트웨어인 IDL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영상의학과 내 일부 영상장비들을 workstation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mini-PACS를 구현하기 위한 주변장치를구입하였다. 영상처리용 workstation과 IDL 그리고 mini-PACS로 이루어진 연호영상연구실의 1차 성과보고회를 2001년 김연호 동문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사정상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신 대구에 거주하시는 동생 분을 모시고 1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김연호 동문께서는 이후 2006년 모국 방문길에 사모님과 함께 연호영상연구실을 방문하시어 그간의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고 당시 연호영상연구실 방문에는 정태호 의대 명예교수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다.



김연호 박사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영상의학교실 연호영상연구실에서는 그간 새로운 의학영상기술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구입한 장비들을 활용하여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에게 의학영상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EBT를 이용한 폐기능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 외 영상의학교실의 국제 SCI 논문 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Radiology 등 해외 저명 학술지에 매년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의학영상에 기반한 다양한 분석 프로그램을 산업체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다.

멀리 해외에서도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귀한 발전기금을 흔쾌히 기부하신 김연호 박사님께 영상의학교실 전체 교실원들은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하신 기금으로 설립된 연호영상연구실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지금도 교 수진 이하 전체 교실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외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기초학력평가 결과 매우 우수

전국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컨소시움을 만들어 해마다 기초 및 임상의학에 대한 기초학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1년 9월 1일 실시된 임상의학 평가에서 본교 4학년 학생들이 29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2월 20일 시행한 기초의학평가에서는 본교 1학년 학생들이 21개교 중 2위를 차지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 생명과학관 2호관(의생명교육관) 예산확보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동인동캠퍼스의 부지가 협소하여 더 이상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 태여서. 칠곡에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여 현재 1호관인 의생명과학관이 신축 중에 있다.

2013년 의생명과학관이 완성되어 기초의학 분야 교수와 실험실의 일부가 이전하게 되면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이 동인동캠퍼스와 칠곡캠퍼스를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수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15학년도부터 의예과가 설치되면 의예과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며,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및 연구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생명과학관 2호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어 2012년도 일반회계에 설계비 6억 4천4백만 원(총사업비 165억 7천5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완전한 칠곡메디컬컴 퍼스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의생명과학관 건립 예산과 의학전문대학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77회 의사국가시험 결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98.13% 합격

제77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우리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은 응시자 117명 중 110명인 94.01%가 합격하였는데, 전국 평균 합격률 93.1%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107명 중 필기시험 107명(100%), 실기시험 105명(98.13%)이 합격하여 의사국가시험합격률이 98.13%로 크게 상승, 매우 우수한 합격률의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졸업생을 특별관리하여 전체적인 합격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은 전국 각지의 유수한 병원에 인턴으로 진출하였다.

제79회 졸업식과 2012학년도 입학식 거행

2012년 2월 24일 제80회 의학과 졸업식이 학생회관 강당에서 거행되어 109명의 동창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27일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학생회관 강당에서 거행되어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인재 110명이 입학하였다. 졸업식과 입학식에는 백운이 경북대학교 병원장, 변영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 김종서 대구광역시 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학부 형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개교 90주년(2013년)

대구의학강습소가 1923년에 설립되어 1927년에 2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3년은 개교 90주년이 된다.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창회, 경북대학교 본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소식

경북대학교병원은 1993년 범인화로 출범한 이후 지난 100여 년의 역사 를 발판으로 21세기 세계적인 초일류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이다.

경북대학교병원의 동향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대구·경북지역암센터 및 노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아 지역민을 위 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 및 의료기기임상시 험센터로 선정됐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08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선정 센터로 지정돼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의 통합 진료가 가능해지고, 심뇌혈관질 화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재활 치료를 워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함도 담당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유영 하기 위한 의료 관련 인력의 협력 및 관리 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에게 심뇌혈관 질화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연중무휴로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 의료진들의 통합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중심센터로서의 역할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약 4천여 명 및 하루 평균 재원 인원은 900여 명(응급실 포함)에 이르러 지 역의 거점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0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로 201개 병원(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157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기관에 대한 2010년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2011년 8월에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화자 안전수준의 우수섯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인증' 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 가운데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병원(친환자 진료지수) 중 전체 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합병증이 없는 다빈도 질병군 4개 중이염 및 상기도 감염-세균성 폐렴-결장경 시술-장관염을 선정, 평균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을 바탕으로 친환자 지수 를 발표한 결과이다.

병원의 발전과 그동안의 성과

201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수술 순위평가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은 주요 5대암 중 위암이 전국 9 위(지방 2위). 대장암이 전국 6위(지방 1위). 간암이 전국 8위(지방 2위), 폐암 전국 8위(지방 2위)에 올 랐다. 10월에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주축이 된 폐암분자진단 컨소시엄이 지식경제부에서 주 관하는 '2011년도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2016년

까지 5년 동안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1년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에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영남권 최초로 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되어 매년 45억 원씩 5년간 총 279억 원(국비 20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2011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 병원 성장지원을 위한 R&D 전략기획과제'를 전국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30여 곳이 참가하여 그중 14개 병원이 선정되었는데 지방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만이 선정된 것이다.

또한 SCI(국외우수학술지) 논문 발표는 국립대병원 교수(의료진)의 연구역량의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전 국 지방 국립대 중 경북대학교병원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3위인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 교병원에 비하여 3배 가까운 논문수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체 규모가 경북대학교병원 의 2.5배에 가깝다고 볼 때 경북대학교병원 교수진의 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 만하다.

또 모발이식 분야는 김정철 교수가 1992년 세계 최초로 모낭군 이식술을 개발한 이래 세계 최고의 권 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는 1996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내 설립되었으며 2007년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모발이식 및 연구센터로 확장개소 하였고 올해 1월 14일 기존 경북대 학교병원 내(99㎡/30평 규모)에서 대구시티센터 6층(1.485㎡/450평 규모)으로 확장 이전을 했다. 모 발이식 수술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 의료기술로서 해외 외국인화자 유치에 적합한 분야이다.

2012년 1월에는 정회원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자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하림 원에 경북대학교병원 이인규 교수(내분비내과), 김신윤 교수(정형외과), 박재용 교수(호흡기내과)가 의 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되었다. 현재 300여 명의 정회원만이 활동 중이며, 경북대학교병원 백운이 교수(마취통증의학과/병원장)도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2008년 9월 신축된 경북대학교치과병원(경대사대부고 맞은편)으로 이전, 진료를 시작했 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연면적 1만여㎡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로 준공됐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동향

대구시 북구 호국로 일원에 500여 병상 규모의 최첨단 암 전문병원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05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승인받고, 10월, 12월에 보건복지부 로부터 각각 대구·경북지역암센터 및 노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 후, 200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1월, 3년여의 공사와 개워준비를 마치고 지난 2011년 1월 3일 희망의 첫 진료를 시작, 드디어 3월 25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특히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의료서비스 및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에 과감 한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지역 최초로 본원과 하나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유방갑상선외과)에서 유방암 수술 및 갑 상선 절제술 1 000례를 돌파하였다. 또한 국가암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광역단위의 대구·경북지역암 센터 및 노인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포괄적 노인보건의료관리를 위한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해 최상의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8 | 동창회보 2012 보호 | 29

경북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선정

경북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 (단장: 이재태 교수. 핵의학/내과학교실)'에 2011년 10월 선정됐다. 본 사업에는 보건복지부 의 국가연구비 250억 원을 비롯하여 대구광역 시. 경북대병원의 대응 투자 등 연간 총사업비로 5년간 300억 원 이상의 R&D 연구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한 대형 국책과제로 최적의 연 구 화경과 핵심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및 산학연 연계의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 크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서 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서울 성 모병원이 지정된 바가 있다.

금번 경북대학교병원은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신약 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개방형 연구 중심병원'이라는 주제 하에 이번 사업을 신청했 으며 지원한 5개의 국내 대형병원과 치열한 경 쟁 끝에 선정되었다. 특히 서울이외에서는 처음 으로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으로 지정이 되었다 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고, 병원이 기존의 개념 인 진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발전에 도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당뇨병 및 대사성 질 환 신약 개발 개방형 연구중심병원'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된 본 사업단은 현재 사용 중 인 비만/당뇨병 치료제들의 문제점(unmet needs)을 해결한 신개념의 약제를 개발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 이미 많은 예비연구를 통해 유망 한 신규표적물질을 확보하고 이 표적물질들의 당 뇨병을 비롯한 당뇨병의 합병증(심혈관질환 지 방간, 골다공증, 대사성 암, 췌장베타세포기능 보 호)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계열의 당 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약 을 개발할 수 있다는 실용적 기획안을 제시하였 으며,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유효성 평가 및 약물 작용기전 연구,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유효성/적응증 확대를 통한 임상적용 연구기반 구축 등의 세부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는 경북대학교병원의 내과 이인규 교 간 동안 최소 2개 이상의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수 정형외과의 김신윤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유 능한 연구진. 경북대 약대와 경북대 자연대 허태 린 교수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유망대학의 교수 및 연구소 제약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단에는 국제 글로벌 제약회사 Novartis에서 신약개발의 업적을 갖춘 KIST의 심태보 박사팀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의 제약기업 LG 생명과학. 대 사질환치료제 개발전문 벤처 제약회사 Mazence 등의 국내 유명 신약개발회사가 참여한 진정한 산 학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그 성공 가능성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본 사 업단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의 행정지원(은 성호 추진본부장)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완공하 는 신약개발센터(센터장 윤석균, 김남두 수석연구 원),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충용) 및 임상시험 신 약생산센터가 함께 참가하고 있어서 대구·경북점

단의료재단의 발전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

이번 사업은 매년 정부의 45억 원 연구비 지원과 함께 주관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이 총 60억 워 및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의 대형 연구시설을 적 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 한 바 있는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는,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제고와 함께 첨복단지의 정착에 핵심 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본 사업의 선정에 많은 행 정적인 지원을 하였고, 향후 5년간 총 15억 원의 기금을 사업단에 투자한다.

이재태 사업단장(경북대학교병원 교수)은 연구 기 합성 신약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시험 완료 및 임 상 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 동안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에 유효성 평가 기술 확립 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 창출의 파생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백운이 경북대병원장은 메디벨리 대구에서 경북 대병원의 위상확립과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정복 사업단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연구와 진료가 조화를 이루며 인류 질병 극복에 이바지하 는 연구중심병원을 향한 경북대병원의 힘찬 도약 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12 복호 | 31

지부 소식

부산지부



모임 및 행사

대구 본부동창회 주최의 가을등반대회를 다녀와서

2011년 10월 23일 아침 7시에 부산 동래전철역 입구에서 회원 및 가족 17명을 모시고 관광버스로 대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으나 다행히 좋은 날씨여서 원로 선배님을 비롯하여 가족 분들까지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대구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아침식사하였습니다. 단풍철이라 그런지 휴게소는 많은 관광버스들로 복잡하였습니다. 아침 9시조금 지나서 대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에 도착하였고, 변영우 본부동창회 회장님 이하 동문들의 따뜻한 환영과 선물을 받고, 오랜만에 만난선후배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한 대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등반을 하였습니다. 등 산코스는 대구 앞산의 청룡산인데 체력에 따라

3코스로 나누어 등반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무는 45회 동기들과 만나 산행을 하였습니다. 나이 많 으신 선배님들과 가족 분들은 힘든 코스를 피해 서 가벼운 산행 후 하산하였습니다. 산 정상에서 는 구름을 두른 산들이 멀리 가까이 보였고 산 정상까지 단풍이 들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정상 에서 점심을 먹고 사진 찍고 하느라고 늦어서 서 둘러 하산하는데 하산하는 길이 더 멀어 3시간 이상 걸린 관계로 부산동창회 회원들은 먼저 뒷 풀이 장소인 경북의대 교정으로 보내고 총무는 회식장소에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본부동창회에 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먹고, 단체로 노래도 부르고. 상품도 받고. 즐겁게 지내다가 더 있다 가 가시라는 변영우 회장님의 부탁에 간신히 5 시 30분에 부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부산에 도 착하니 7시 30분경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 온 것과 수고하신 본부동창회에 멀리서 감사드 리며 해산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분(존칭 생략)

김희교(28회), 심제용(32회) 부부, 최명부(33회) 부부, 김수길(34회), 박노삼(39회) 부부, 박진현(39회), 석광호(45회) 부부, 장기형(45회), 손태환(47회), 최광호(47회), 이영택(48회), 이재성(49회), 허용진(54회) 이상 17명

부산동창회 행사 (2011년 10월~12월 사이 소식)

10월 14일 제2차 확대이사회 개최

1) 회원 사진수첩 발간에 관한 건

2) 2012년 동창회지 발간에 관한 건

10월 23일 가을등반대회

유실회(부산 동창회 원로회원 모임) 임원개선 회장 정용국(28회), 총무 지창준(35회) 안행회(부산 동창회 골프 모임) 동절기(12월~2월)에는 휴회함

구 분회 모임(2011년)

11월 24일 북·사상구 정기총회 11월 29일 부산진구 정기총회 12월 2일 남·수영구 정기총회 12월 13일 서·사하구 정기총회 12월 15일 동래·금정·연제구 정기총회 12월 29일 동구 정기총회

경조사(2011년)

10월 16일 도용희(54회) 장녀 결혼식 12월 17일 최기대(12회) 차남 결혼식 12월 25일 주운수(45회) 장녀 결혼식 12월 12일 이상화(54회) 동아대 미생물학교수 부 친상



제공 | 윤상흠(58회) 동문



재울경북의대 소식(2011년 9월~12월) 모임 및 행사

3분기 정기이사회(9월 1일, 정일품 한정식)

이사 스물세 분이 참석하여 후반기 행사(산행 및 송년회)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 동문회 기금을 현행대로 의사신협에 정기예금키로 했고 차기 총무단에 대한 인선이 있었습니다.

추계등반대회(10월 16일, 울산 무룡산)

울산시의사회와 같이하는 추계등반대회가 울산 북구 무룡산에서 열려 많은 동문과 가족 분들이 참석하여 깊어가는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하였습 니다.

구 분회 모임

11월 3일(중, 북구, 울주군) - 정원식당 11월 15일(여의사회) - 현대백화점 홍보석

2011년 송년회(12월 8일, 예맥장작구이)

50여 동문들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며 특히 부산지역 백병원 의료원장으로 계신 은충기(41회) 동문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십여 명의 동문들이 이기호 회장님의 인도 아래 인근노래방에서화끈한 뒷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동문근황

윤정수(54회): 이전개원(서생의원)

김병용(55회): 개원(무거정형외과의원)

신상훈(60회), 하영애(61회) : 연수차 미국 보스

턴 출국(1년 예정)

이재윤(38회) : 이울(의정부) 황승욱(67회) : 이울(경대병원)

박준정(67회): 이울(부산)

백봉수(31회): 제14회 울산의림대상 수상(2011

년 11월 26일 울산롯데호텔)

경조사(2011년)

이명우(51회) : 장남 결혼식(9월 2일)

고철언(32회): 별세(11월 27일)

채영수(54회): 모친상(11월 27일)

이수형(55회): 모친상(12월 6일)

장인석(54회): 부친상(12월 17일)

동기회 소식



제공 | 김재식(28회) 전 공보이사

1. 재미동기 소식

이상국 대표동기는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세계적 인 토픽 뉴스만담과 명사진 화보 등 계속 이메일 로 보내주고 있어 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 로 특별한 흥미거리는 전 동창에게도 알리고자 한다. 동기들의 동태를 부지런히 보내주고 있어 고맙고 동기소식 창구역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 다. 한국과 모교에서도 잘 반응하고 모국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동창회 특유의 교신이 이루어지는 28동기가 아닌가 생각되어 자못 흐뭇한 기분이 다. 연초에는 동기들에게 전하는 흑룡 새해의 신 년메시지(카드: 임병우, 김재확)가 와서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미국동기들은 정년 후 겨울이면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로 떠난다고 한다. 별장이 눈에 선하다. 강경훈 동기의 건강호전을 빕니다. 다른 소식도 많이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인터넷시대에 모임은 이제 뒤로 밀린다. 특별한 일은 개별적으로 척척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소? 2월달에 김상완 동기가 잠시 귀국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윤영길 동기만 살짝 만나고 행방이 묘연하여 아직도 수소문을 하고 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2. 국내동향

부산의 김창배 동기는 서울을 오가며 사업(병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지역에 치매 강의를 한 바 있다. 임철재 동기도 서울에서 유유 자적하고 있고 홍형식 동기는 문경에서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여 왔다. 이 덕희는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계속 잘 지내고 있 고 이재창 동기도 돗대기시장이라 환자가 많아서 고생하고 있다. 홍진권 동기는 개업을 중단하고 요양병원에서 계속 일 잘하고 있다. 권달만 동기 는 건강이 호전되어 산책을 즐기고 있고 유광수 동기는 아들(가정의학과)과 함께 진료를 하고 있 어서 시간이 남아돌아 간다고 유유자적 참 보기 가 좋고 윤영길과 이상계 동기도 아들의사에게 거의 맡겨놓고 다니니 참으로 부럽소. 그 외 거의 모두 노익장의 생활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김 재식 동기는 작년 5월 개교기념행사 때 연중행사 로 편집부학생들과 함께 동창저서 전시회를 주관 하며 인술액자(서예작품) 한 점을 기증하였다. 5 월과 8월 살구밭(행림)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림 (杏林. 명의 모동의) 사진도 찍고 가을에는 가족 들과 함께 살구를 따며 의료계의 상징 무능도원 (杏林)을 체험을 하였고 10월 늦가을에 노수열



김희교, 이상계와 김재식 동기는 또 동창회 주최 대덕산 등반대회에 참가하여 소통기회가 되었다. 이 때에 이상계 동기가 모교병원 비뇨기과에 입 원하여 전립선제거수술을 받았다가 무단히 발생 한 심부전으로 자가요법으로 스스로 회복시키느 라 좀 고생을 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등반길에서 실토를 하여 동기들의 건강을 더욱 염려하게 되 는 계기를 삼았다. 11월에는 대구가톨릭의대 의 사학강의를 하였고 동산의료원에서 개최된 대한 의사학회에서 의학의 결정적-과학화를 발표한 김재식(배학분) 동기는 금년 1월 14일 서울의 Anniversarv예식장에서 5남매 중 막내인 학교 (Corey, 미국NJ주립대 운동과학 전공, 서울대 박 사과정 입학/금년)과 동창인 성혜령(77회, 아산병 원 임상시험과)을 미국 종교철학가 김범식 목사 의 주례로 일반결혼식으로 예식을 올렸고. 이를 1 월 27일(금) 정기시민건강강의에서 초간소화시킨 가족중심 결혼식 소개(안내장 최소화와 함과 폐 백 생략, 한복과 쌍방 사돈청하기 생략 등)로 주 목을 받아 한국식 이중삼중의 폐단을 철폐하는 생활의 과학화사례로 강의를 하여 주목을 끌었 다. 2월에는 신학기 본과 1학년 강의록을 개정강 의하고 2월의 QA학회참석 등 분주한 시간을 보 냈고 4월 초에 서울춘계심포지움 LM(대한진단검 사의학회)학회에 참석하고 후진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밀양 영남종합병원 명예원장과 금요일의 대구 곽병원(건강대학 및 대학원강의 등)외 매월 4~5금요일 시민건강강의와 5월의 동창저서 전시 회 준비 등으로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의 근황으로 이상계 동기가 신종바이러스성 독감에 걸려 가톨릭대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급속 한 회복을 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용꿈을 꾸었다. 추가소식으로 금년도 동창회 안행대상 선정위원장을 맡아 2월 총회에서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총회 때 유영길 이상

계와 김재식 동기가 참석, 아쉬운 소동기회 기분을 만끽하였다. 동기회모임이 동창회 명목상의 박진홍 회장과 이재규 총무의 의무는 무소식 회소식의 섭리로 동기회가 존재하는 마당에 유광수총무를 오늘 기차역에서 우연히 만나 부부모임은고 김임동과 김석구 동기 외에는 모두가 잘 모인다고 들어서 그나마도 부인동기회가 대신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유명무실한 동기회상이다가 보니 옛날 그때 그 동기회가 그리웁다.

3. 특기 사항

바야흐로 인터넷시대에 못 모이더라도 많은 동기 의 소식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4. 모교교지(행운-杏雲, 본과3년 때 창간)의 모체 삼영(杉影, 초록색등사본)을 애절하게 찾고 있음 (삼영기사신문제보) 후한 보상금 지급^^





3 (호 제공 | 강창수 총무

2012 봄호 | 35

2011년 12월 13일 저녁, 30회 동기회 연말 총회가 있었다. 2012년도 회장에 김병화, 총무에 강창수가 선정되어 함께 박수를 받음. 권득기 회장, 김도상 총무가 재작년부터 준비 시작하여 김도상, 김

34 |동창희보

병화를 거처 오늘에 이르렀으며, 거기에 더하여 든든한 준비위원들이 끌고 당기고 떠밀고 있으니 이제 김병화, 강창수를 통하여 계획대로 50주년 행사 집행할 일만 남았다. 잘되리라 믿어. 안행 소식지 102, 103호를 통하여 김도상 회장이 대내, 대외, 큰일, 작은일들을 지나칠 정도로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므로 더 이상 추가 부연할일은 없고 이제 남은 일은 그립던 친구만남, 50주년 행사에 참여, 지체없이 등록하여 소풍갈일만 남았다. 소풍(바람 쐼)!

지난 1월 10일 이화회(2水會) 첫 월례회를 소집 하면서 총무의 表紙글 하나 첨가해 보냈지. 보내 면서 부탁을 했지. 부디 한 편 이상 뼈를 깎는 노 력으로 필을 잡아달라고 왜? 험악한 세월? 보내 면서 느끼고 갈고 닦으면서 다듬은 사건들이 얼 마나 많으실까? 매월 모여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니까 지루한 감도 있어? 진솔한 글 서로 나눔(share)은 어떨까? 솔직한 고백과 기록 들은 훗날 내게. 후손. 도규계의 후배들에게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일 거라고 왜냐구? 수많은 풍상을 겪고 연로한 다윗 대왕께서 만년에 쓴 詩 가 詩篇의 箴言으로 바뀌었지. 우리 내일 모레면 傘壽 아닌가? 우리도 반반한 글 한두 편 남겨야 지, 월례회가 끝나자 이학수 詩 1편(해설추가). 정태수 3편. 전재규 1편. 강석헌 1편. 윤석하 예 약 보내왔지. 월례회 소집 통보 때마다 한두 편 씩 동봉하여 매월 2~3편씩 표지글로 서로 나눔 (share)을 갖게 되면 일 년에 30편 족히 모이지 않겠나? 30회 동기회 50주년 기념행사는 외형 적 관행적인 행사를 넘어 성숙되고 노숙한 주옥 같은 문집이 하나 솟아나지 않겠냐고 혼자 생각 해 봤어요(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 나?). 부산의 배병원 친구는 책을 몇 권 썼으니 그 노고가 어떠했을까?

우선 강석헌 '졸업 50주년 회고 단상(斷想)'을 실어 보내니 모두가 지난날 기억을 다시 더듬어 주옥같은 단상, 수필, 논술, 시사, 사진, 그림, 남 겨 주시길 앙망.

보낼 곳: 761/700 대구시 중구 대봉1동 111-1 청 운맨션 1/1205 강창수 앞

원본은(Hard: 본체) 잘 보관해 주세요. 곧 찾을 때가 올 것이니까. 끝



3호

제공 김영명

경북의대 31회 동기생들께 2011년을 마감하 며 보내는 소식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북한 김정일이 사망했단 소식이 52시간 지난 후에야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폐쇄와 보안 통제가 완벽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동경하는 무리가 한국에 공공연히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번 동기회는 연락 가능한 동기생 45명에게 모두 통지했는데 그중에서 김광태, 남재만, 양성기, 엄정섭, 이봉조, 이희석, 황규성, 안재두, 황세환, 박승국, 박시균, 강반, 이상원, 심달보, 정영천, 지용한 회원들께서 친구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2012년 한해가만사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법니다



38[₫]

제공 김흥대 회장

졸업 40주년 기념여행을 회상하며

돌이켜보면, 2011년은 우리 38회(칠공회) 동기 들에게는 추억이 새로웠던 한해였었다. 지난 2010년에는 손자손녀 돌보미때문에, 정년 재취

업 하자마자 며칠 빠지는 게 그렇게도 미안해서 (?) 참가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취소되었던 '졸업 40주년 기념여행', 어 떤 40주년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 다는 열성회원들의 불꽃같은 성화로, 41년 만인 2011년 녹음 짙은 6월에 '40주년 기념여행'을 통영, 순천, 보성, 남해안 1박과 목포, 담양, 서해 안 1박으로, 점심, 저녁 끼니때마다 산해진미 성 찬의 남도음식과 향기 짙은 토속주 그리고 왕자 공주의 성같은 호화호텔에서. 현부인들이 아무 리 귀를 쫑긋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40년 전 총각 때의 우리들만의 끊어질 줄 모르는 박장 대소 옛이야기와 와이담으로. 2박3일이 봄날의 낮꿈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다. 특히나 영롱 한 진주같은 우리의 고명학생 최영창 여사와 그 리고 백용현 선배님의 어려운 참석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나이는 못 속인다고. 모두들 60대 터미널이니 말도 입에서(?) 곧잘 헛나와서. 최여사 "우리 36회는" 했다가. "니가 언제부터 36회가 되었냐?". "시집 자랑 너무 하지마라!". "아니다. 시집은 잘갔다!" 또 한 번 폭소. 백 선배 님은 행사에 보태쓰라고 금일봉 봉투를 내놓으 셨다가. "그래, 사위는 원래 처가에 올 때 빈손으 로 오는 법이 아니지". "36기는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다!". "영창아. 시집에 기죽지 말고 살아 라, 우리 38기 집안도 대단하잖느냐? 부부 영의 정 부총장 출신 집안. 과거시험 진사 홍패 석좌 교수 3명이나 배출된 집안, 이런저런 벼슬 모두 합치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모자란다. 큰 소리 치면서 살아라!" 헤어질 때의 결정사항은 구구 팔팔 30여년 밖에 즐기지 못하는 아쉬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앞으로는 2년마다 '동기회 정기여 행'을 꼭 실행하자는 구두연판장을 마음 깊이 돌 판에 작성함으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백 선 배님, 죄송합니다. 금일봉은, 마음을 받지 봉투

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선배님께서는 점심, 저녁, 술을 그렇게 많이 샀지요. 결코, 계산된, 등두드리고 술 빼먹은 건 절대 아닙니다. 바쁘실텐데도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동기 모두의 마음을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10월에는 미국의 정병하와 김융소 동기가 같이 귀국함으로써 많은 동기부부들이 두 번이 나 함께 모여서 웃음의 꽃을 피웠던 시간, 또한 2011년의 즐거웠던 추억이기도 하다.

동기회 경조사

정년 : 이승호, 정영복, 최성협(2월 28일), 윤성도(8월 31일).

혼사 : 김재문, 장남(3월 26일),

박동춘, 장남(12월 17일). 상사: 전재복, 모친(12월 11일).



40회

제공 조성룡

총동창회 등반대회에 12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다. 40회 동기는 2012년도에 졸업 40주년을 맞이한다. 졸업 40주년 기념하여 국내 및 재미동기들이 2012년 11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부부동반모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으며이 모임을 위해 올해 도영구 회장, 서정규 총무가 수고하기로 하고, 11월 30일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몇몇 동기들은 교수직에서 또는 공직의사에서 정년퇴임을 하게될 것으로 안다. 아무쪼록 모든 동기들이 항상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새해를 맞이하면서기원해본다.



44회

제공 | 배형일 총무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기들 모두 2011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겠지요. 2012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하는데 용띠에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일을 관철시키는 결단력과 돌파력이 대단하다고 하니용띠 동기들의 건승을 빌면서 작년 후반기 동안 있었던 동기회의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2011년 8월 20일에는 여형태 회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많은 선후배 및 동기들이 모여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8월 28일 청도 그레이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동 창회 기별 골프대회에는 김인호, 이윤상, 이재 민, 한건호 동기가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 었습니다.

9월 22일 만반에서 가진 월모임에는 14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0월 26일 한강성심병원 안과 이경화 동기의 장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0월 23일에는 총동창회 등반대회가 대구 청룡 산에서 열려 경향각지에서 약 250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하였는데 44회 동기회에서는 김지 홍 부부, 이종주 부부, 여형태, 오천석, 장태식, 최도영, 배형일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만끽하였습니다.

11월 5일에는 이정규 동기의 차녀 결혼식, 그리고 26일에는 이창수 동기의 장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하는 결혼식을 원하여 동기들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6일 월모임은 제주도의 장승원 동기가 보

내준 자연산 방어로 혜영물회에 14명의 동기들이 모여 방어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승원 동기의 마음씀씀이가 고마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11월 28일에는 조영래 동기의 「요리를 사랑하는 의사」책 출판기념식이 있었는데 책 판매 수익금 중 출판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을 사회 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조영래 동기의 소중한 레시피를 모은 책 이 많은 사람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리라 기대 해봅니다.

12월 4일에는 도인아 동기의 차녀 결혼식이 있었으며, 24일에는 권영선 동기의 장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었는데 혹시 나쁜 기억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동기 여러분 모두 흑룡의 강한 기운과 지혜를 받아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201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제공 이유철 총무

2011년 동기회 총회 개최

2012년 1월 13일 동기회 총회를 가졌다. 26명의 동기가 모여 회의 및 식사를 하고 한해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졸업 30주년이 되는 2012년 을 계획하였다. 우영훈 동기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재태 동기가 재무, 이유철 동문은 총무를 맡기로 하였다.



53[‡]

제공 이태규

경북의대 53회 서울나들이

우리 동기회는 2010년 홈커밍 이후 동기생들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나 달려가 그곳에서 동기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기회로서는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요즈음에 동기생들이 1박2일로 함께 수학여행처럼(물론 남녀동반) 다녀오는 재미가 쏠쏠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동기들은 귀한 손님맞이를 해야하니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해당지역 동기회가 활성화되고 정이 깊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이 물론이다.



이번 모임에 많은 도움을 준 회장단과 서울 동기들에게 감 사드립니다.

2010년 첫 부산나들이 때도 약 40여 명이 차를 빌려서 부산에 가서 1박2일로 잘 놀면서 잊지 못 할 추억을 만들었고 2011년에는 그 모임을 서울 에서 하기로 했다. 하여 2011년 10월 8일, 22명 의 남녀동기들이 모여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들 뜬 마음으로 장년의 수학여행길에 올랐다(동대구 역 KTX). 서울역에 도착하니 서울동기들이 역에 까지 마중 나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박수로 환영 해 주었다. 서울동기들은 조를 짜와서 조장들이 동기들을 잘 인도하였다. 서울 명동의 로얄 호텔 에 전국 각지(인천, 부산, 춘천, 대구, 통영, 창원 등)에서 온 동기 45명이 모여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황준하, 박병철 등 진짜 만나기 어려운 동기도 와서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그 자세한 내용은 동기회 Cafe에 수록). 맛있는 식사와 7080밴드의 연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내로 이동하여 가을의 낭만이 흐르는 카페 가을에서 2차, 노래방에서 3차, 포장마차에서 4차를 가지고 한실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7~8명이 모여서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잤다. 이제까지 살아온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며…

다음날은 일찍 콩나물국으로 해장을 하고 서울 동기들의 안내로 경복궁, 덕수궁,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에서 빈대떡이 가장 맛있다는 광장시장 빈대떡과 막걸리로 식사한 후 오후에는 청계천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우정의 갈증을 풀었다. 이후 서울역에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여러 동기들이 그 생생한 소감과 사진을 동기회 Cafe에 올려 놓았으니동기생들은 읽어보기 바란다. 지면관계상 그 자세한 일정을 소개치 못함을 유감으로 여긴다. 한껏 고무된 동기들은 내년에는 울산, 다음엔 남해(창원, 통영), 다음엔 춘천, 제주 등으로 일정을짜기 바빴다.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섭섭하고, 다시 보고 싶은 우리 53회 동기생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올해도 1월 28일 신년회, 4월 골프대회, 그 다음 지역 방문 등 즐거운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나와서 우정을 나누고, 우리 경북의대 동창회에서 가장 재미있고 모범적인 동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54^a

제공 김인겸 총무

동기 중 제일 먼저 장가를 간(본과 3학년 때) 도용 희 동기가 지난 가을(2011년 10월 16일) 동기 중 제일 먼저 혼사를 치렀다. 따님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원주기독병원에서 마취과 전공의 수련 중이다. 사위 역시 일반외과 전공의 수련 중이다. 이렇게 좋은데 가만있을 수가 없지! 100만 원특별회비 납부했다.

안중걸 동기와 김태형 동기가 서구 및 달서구 의 사회장에 취임하여 구의사회 발전과 회원 친목을 위해 3년간 봉사하게 되었다.

2012년 3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황정한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홈커밍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홈커밍준비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동호 준비위원장, 박순원, 손효돈, 이상민, 김인겸(이상 위원). 신임회장으로 이상민, 부회장권영오. 총무 김인겸, 학술총무 박순원, 감사 황





보근(전임총무 당연직)이 선임되었다. 이어서 로 즈마리산부인과 김건오 동기의 '폐경' 특강이 이어졌는데 참석한 부인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이효성 동기가 진행한 윷놀이 판은 분위기를 돋우는데 큰 몫을 하였다. 손효돈, 김건오, 남윤성, 유영수, 김형표, 김시열 조가 1등상을 차지했다. 신임 이상민 회장이 7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홍성범 동기가 행운의 1등상 디지털카메라를 탔다. 폐회사를 대신하여 이상민 신임회장이 마종기 님의 '寓話의 江'을 낭독하였다. 총회에서 달아 오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참석한 대부분의 회원과 사모님이 2차에 합류했다.

Personal News

조감염인 외항선원 취업차별 개선과 에이즈감염 인 인권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진행했다. 에이즈감염인 정신병원 입원거부에 관한 구제, 응급구조대에 의한 감염인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감염인 인권 신장에 누구 보다 앞장서고 있다.



김태준(38회) 동문 소설가로 등단

김태준 동문이 소설가로 새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구 성서병원 응급실 주임과장인 김태준 동문

은 월간 한맥문학 8월호에 단편소설 '구복산의 노을'이 당선되어 소설가로 등단했다. 1인칭소설 즉, 사소설인 '구복산의 노을'은 작가 자신의 집 안 윗대 어른인 입향조 김자남 옹의 행적을 문학 적으로 추적한 계보록으로 입향조의 여러 편 옛 시를 찾아 인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김난희(39회) 동문 2011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 수상

2011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 장 수상자가 경북의대에서 나왔

다.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김난 희 동문이 63주년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에 선정됐다. 김난희 동문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세계인권선언기념식'에 참석하여 수상하였다. 김난희 동문은 가족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에이즈감염인들을 위하여 2005년 쉼터를 설립했다. 또한 감염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에이즈감염인 인권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진행했다. 에이



전석길(40회) 동문 대한핵의학회 청봉상 수상

전석길 동문이 11월 3일부터 5일 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대한 핵의학회 50주년 기념 추계학술

대회 및 총회에서 제11회 핵의학회 청봉상을 수 상하였다.



전재은(40회) 동문 대한심장학회장 취임

전재은 동문이 12월 6일 제55차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재은

동문은 1972년 모교 졸업 후 경북대학교병원 내 과과장, 대한내과학회 회장, 대한고혈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손수상(41회) 동문 대한외과학회장 취임

손수상 동문이 11월 23일부터 26 일까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에서 열린 제63차 대한외과학회 학

술대회에서 대한외과학회장에 취임했다. 손수상 동문은 경주동산병원장, 동산병원장, 계명대 의무 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대한위암학회장, 대한암 학회장, 대한기독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40 | 동창희보

Personal News



김성구(42회) 동문 순천향의료원장으로 취임

김성구 동문이 2011년 12월 28 일에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앞

으로 김성수 동문은 서울과 부천, 천안, 구미에 있는 4개 순천향병원과 의과대학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김성수 의료원장은 1974년 모교 졸업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심장내과에 재직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을 역임하였다.



여형태(44회) 동문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선출

여형태 동문이 2012년~2013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2013년 대한신

경외과 춘계학술대회 및 11월에 개최되는 영·호 남큐슈 한일신경외과 학회를 대구지역에서 유치 하여 주관하게 되었다.



정능수(48회) 동문 제42대 경상북도의사회장에 취임

정능수 동문이 제42대 경상북도 의사회장에 취임했다. 정 동문은

1980년 모교 졸업 후 의성군의사회장, 경상북도 의사회 감사,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정능수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2년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김종서(49회) 동문 대구시 의사회장 취임

김종서 동문이 제11대 대구시 의 사회장에 취임한다. 김종서 동문 은 1981년 모교를 졸업하고

1988년 김종서내과의원 개원, 2006년 대구광역시 북구의사회장, 2009년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2년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김정철(50회)·황성주(62회) 동문 국제학술대회 개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륨에서 대한모발이식학회장 김정철 동문과 아시아모발 이식학회장 황성주 동문이 공동대회장을 맡아 주 최한 아시아 모발이식학회 제2차 학술대회에서 23개국 2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학술대회는 첫날 이뤄진 ABHRS(American Board of Hair Restoration Surgery)시험을 시 작으로 크게 학술과 시술 시연으로 3일간 진행됐 다. 6개의 모발이식 전문병원들을 그룹별로 방문 해 직접 시술을 경험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Video Surgery Workshop'을 마련해 상담에서 수술결과까지 과정을 30분 분 량으로 편집해 강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참 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김정철 동문과 황성주 동문은 한국의사 16명, 외국의사 2명과 함께 공동저자로 한국 최초 모발이식 교과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재태(50회) 동문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장 선정

이재태 동문이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 단장에 선정되었

다. 2011년 10월 경북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가 족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선도형 특 성화 연구사업단'에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의 국가연구비 250억 원을 비롯 대구광역시, 경북 대병원의 대응투자 등 연간 총사업비로 5년간 300억 워 이상의 R&D 연구비가 투자될 예정이 다.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에서 2006년부터 시행한 대형 국책과제로 최적 의 연구 환경과 핵심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 원의 육성 및 산학연 연계의 오픈 이노베이션 네 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서울대학 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서 울 성모병원이 지정된 바가 있다. 이재태 사업단 장은 연구기간 동안 최소 2개 이상의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합성 신약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시 험 완료 및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 동안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에 유효성 평 가 기술 확립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산업 창출 의 파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민병국(52회) 동문 문경시의사회장에 취임

민병국 동문이 문경시의사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민병국 동 문은 문경시의사회 부회장을 거

쳐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3월 1일 부터 1년간이다.



김학근(58회) 동문 구미시의사회장에 취임

김학근 동문이 구미시의사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학근 동문 은 구미시의사회 재무이사, 기획

이사,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임기는 2012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우리 동문들 대거 회장 취임

대구광역시의사회 신임 구·군의사회장에 우리 동문들이 대거 취임했다. 중구의사회장에 이수 형(53회) 동문, 동구의사회장에는 박창순(53회) 동문, 서구의사회장에는 안중걸(54회) 동문, 달 서구의사회장에는 김태형(54회) 동문, 남구의사 회장 오형호(55회) 동문, 수성구의사회장에 이성 락(55회)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구광역시 의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곽병원 60주년 개원 기념행사

대구 곽병원이 4월 10일 개원 60주년 을 맞아 프린스호 텔에서 조촐하게



봉사병원 상징 세족식 장면

기념리셉션을 가지고 20일에는 지하철 중앙로 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곽병원은 2차병원으로 24명의 전문의와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충수염수술 전국 1위, 인공관절수술 우수병원, 사회봉사 우수기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병원 등의 21세기 국민건강을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하였다.

공직에 있는 경북의대 동문들

이번 호 ISSUE PEOPLE 코너에서는 공직에 있는 경북의대 동문을 조명해 봤습니다. 공직에서 경북의대를 빛내고 있는 동문들을 만나봅시다.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장으로 재직중인 김성수(45회) 동문

김성수(45회) 동문은 1977년 졸업 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과장과 포항의 료원 산부인과 과장직을 역임하였고 2007년도에 청송의료원장으로 부임하여 200병 상 규모의 청송의료원을 4년여 동안 맡아 이끌었으며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장으로 재직중이다. 김성수 수성구보건소장은 나날이 변화해나가는

건강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대회 최우수상 수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 중에서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는 최우수 보건소로 이끌어가고 있다.

지식경제부 서기관으로 활동중인 김성수(62회) 동문

1994년 모교를 졸업한 김성수(62회) 동문이 지식경제부 서기관에 임명, 국가의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 방사선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200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관리학을 공부한 후, 2002년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특채되었다. 복지부에서는 WHO사무총장(이종욱 박사) 선거, 생명윤리법 제정, 보건산업육성정책, 정신질환정책 등을 맡았고, 2007년에는 실물경제 총괄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籍)을 옮기게 되었다. 2009년 서기관으로 승진, 현재는 1년간 외부 파견중이며, 2012년 3월 본부로 복귀할 예정이다.



대구시 동구보건소장으로 재직중인 안순기(63회) 동문

안순기 동문은 199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경북 청도군 매전면과 운문면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마쳤다. 경북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료 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수련 후 예방의학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 3월부터 약 9년 동안 고령군 보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금년

에 대구시 동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하였다.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각종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골관절염 관리를 위한 아리랑체조 개발 및 보급,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 17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건강증진실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0년에는 전국 최우수보건소로 복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다.

34회 동기회, 졸업 45주년 기념

캐나다 록키산 여행기



글 **_ 편영식(34회)** 동문

5년 전 거제도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다음 만남을 2011년에 45주년 기념 모임으로 정했고, 수년 전 재미 경북의대 동창회 회장으로 많은 행사를 깔끔하게 치뤘던 권기호와 육정혜 부부가 맡아 봉사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칠순 자축연과 더불어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면서 동기간의 우의를 다지는 것을 컨셉으로 캐나다 록키산에서 2011년 7월 20일 개최키로 했다. 참석자는 모두 34명, 한국에서는 강행복, 고경환, 김유문, 정영식, 최현만, 편영식 내외 12명, 그리고 미국에서는 권석찬, 남상규, 문정오, 신철야, 정근영·박대선 내외, 박정태, 장춘식, 정국, 정해진, 최성정, 권기호·육정혜부부 총 22명이 함께 했다.



첫째 날. 7월 20일 낮 12시경 정확히 한국 동기 들이 인천공항에 다 모였으나, 오후 4시 30분에 출발 예정이었던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4시간이 지연되었다. 다행히 정영식 동기와 친분이 두터 은 인천공항 세관장의 호의로 일등석 승객만을 위한 휴게실에서 푸짐한 식사를 대접받고 지루함 을 달래는 행은을 누렸다. 10시간여의 비행 후 캐 나다 밴쿠버 낯선 도시의 공항에 안착. 미리 도착 하여 기다리던 재미동기들과 악수. 허깅. "반갑 다.". "오랜만이구나.". "웰컴"을 외치면서 뜨거 은 재회의 반가움을 서로 나누었다. 바로 버스에 올라 인디안 언어로 '바다로 향한다' 는 뜻을 가진 페리터미날 페리트왓슨으로 이동, 조지해협을 건 너 밴쿠버시 건너편에 위치한 밴쿠버섬 내에 있 는 빅토리아시를 향해 떠났다. 우리나라보다 큰 석인 밴쿠버섬이 태평양을 가로막고 있어 조지해 협에는 파도가 없다고 하며, 가끔 돌고래 무리들 이 나타난다고 하나 보지는 못했다. 빅토리아시 에서 늦은 저녁식사 후 호텔에서 긴 비행의 피로 를 풀었다.

둘째 날,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주도인 빅토리아시 관광에 나섰다. 영국보다 더 영국적인 고풍스런 시가지, 우아한 색깔로 장식한 가게들, 영국에서 수입한 도기와 은식기를 진열한 찻집, 창문에꽃으로 장식한 주택들, 최신식 화려한 건축물, 영국식 정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프레이저 강가에면하여 있었다. 1897년 완공한 빅토리아시의 상징인 주의사당 건물은 영국여왕의 지시로 프란시스 라텐베리라는 24세의 젊은 천재건축가의 작품이라 하며, 건물 기둥 33개가 록키산에서 채취한사암(sand stone)으로 제작했다는 아담한 건축물이었다. 이 섬을 발견한 조지 밴쿠버의 동상과타임캡슐을 묻었다는 백주년 기념광장에서는 단체 기념촬영을 했으며,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순

국기념비 앞에서는 감사와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 를 올렸다. 빅토리아시에서 약 20km지점에 위치 한 부차드가든은 본래는 채석장이었던 곳을 1900년 초에 부차드(Butchart) 부부가 약 7만 평 의 부지에 조성한 테마공원으로, 년간 100만 명 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주위보다 한층 낮게 만든 선큰 가든(Sunkun Garden). 장미 정원, 일 본 정원. 이탈리아 정원. 지중해 정원. 이 모두가 단순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만 만개한 아기자기 한 정원이 아니고.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아름드 리 고목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군데군데 호수와 폭포. 작은 연못과 분수들. 수많은 청동조 각들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있어 관광객들이 모두 원더풀. 뷰티풀 감탄사를 저절로 내뱉는다. 어제 의 코스를 되돌아 페리선상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밴쿠버에 도착, 트란스캐나다 하이웨이를 타고 록키를 향해 1.200km의 대장정이 시작됐 다. 호프로 가는 도중에 Bridal Vail Fall에 들렀 다. 이 폭포는 신부의 베일처럼 펼쳐져서 떨어지 는데 주위의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 (공기 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력이 있다고 함) 와 폭포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합쳐 공기를 맑게 한다고 한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듬뿍 들이키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골드러쉬 때의 거점도시였 던 호프로 가는 길 양쪽에는 쭉 곧은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호프를 지나서 가랑비가 내리 기 시작, 캐나다 국민가수 셀린디온의 컨츄리 송 을 들으며 깊은 산속 골짜기를 버스는 열심히 달 린다. 재치있고 박식한 가이드의 수준 높은 설명 을 귀로 들으며, 아름다운 경관들과 간혹 나타난 다는 야생동물들을 놓칠세라 눈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었다. 오후 7시경 메릿에 도착해서 저녁식

사 후 하룻밤을 묵었다.



셋째 날. 록키 가는 길 중간에는 명소도 많고. 멋 진 풍경도 많으며 처음부터 홀딱 반하지 말고 시 간 안배를 잘해야 한다는 가이드의 재촉이 있어 오늘 아침에는 서둘러 아침 7시에 출발했다. 준 사막지대인 메릿을 지나 목재도시이자 내륙 교통 중심지인 켐룹스에 도착, 이곳에는 캐나다 최초 의 실버타운이 있고. 한국인이 인삼재배에 성공 한 곳이라 한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 있 다. 의지의 한국인께 치하를 드린다. 켐룹스를 조 금 지나니 작은 그랜드캐니언이 약 30분간에 걸 쳐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년의 세월동안 현재의 모습이 되기 위해 다듬어 져서 멀리서 찾아온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은데.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 안타깝다는 생각에 잠기 는 동안 해발 2.000m가 넘는 산과 그리고 강과 호수들이 지나가고 있다. 호수 지역인 새면암 사 카무스 가까이에는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들이 연이어져 있었다. 캐나다의 자연은 거대하고 웅 장하면서도 다양하고 아름다워 인간을 압도한다. 3.000m가 넘는 바위산들이 만년설을 머리에 이 고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날카로운 암벽들 을 이루고 있다. 정상은 신의 자리를 연상케 한 다. 자연의 오묘함에 취해 어린 시절 소풍갈 때의 설렘 그대로 순진무구한 아이들처럼 모두들 환성

을 질렀다. 눈 덮인 설산도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고산식물인 아네모네, 에델바이스, 물망초, 이름 모를 흰꽃, 노랑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아기자기 하게 피어있는 모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는 1885년에 완성된 몬트리올에서 밴쿠버까지 4,600여 km인 캐나다 퍼시픽철도의 마지막 스파이크도 보았다. 골든이라는 곳에서 잠깐 쉬고 2,400m의 큰고개를 넘으니 이제 록키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풍경에 취해 있는 중간중간 권기호와 육정혜가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진행으로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했다. 자신들의 현황,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의 소식들. 인터넷까지 뒤져 메모까지 해 와서 발표하듯 하는 유머들. 구성진 가요들. 우스 개 이야기에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거장 정영식 의 최신 유머들. 신철야의 깊이 있는 맞장구. 유 머 픽션이 섞여 있는 듯 느낌을 주는 대학시절의 감추어졌던 얘기들. 특히 Mrs. 권석찬의 연애시 절 에피소드 자신들만 아는 story가 어떻게 많든 지 모두들 표정도 세련되고 말솜씨들도 좋아 버 스 안은 폭소로 가득 찼었다. 웃고 즐기는 동안 드 디어 애서배스카 빙하(Athabasca Gracier)에 도 착. 애서배스카 빙하는 록키산에서 가장 큰 빙원 으로, 3.491개의 애서배스카산과 그 뒤에 있는 3.450개의 안드로메다산 사이에 있는데 면적 325km². 총 길이 6km, 폭 1km, 두께 350m의 거 대한 얼음덩어리다. 빙하 1cm가 되기 위해서는 12m의 눈이 쌓여야 한다니. 수만 년 눈이 내리고 쌓여 빙원이 된 것 같다. 1844년에는 지금의 주 차장까지 빙원이 있었는데, 150년 동안 끝자락이 녹아내려 지금은 언덕중간까지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빙원에는 눈 속에 크레바스가 3.000여 개 나 있어 위험하다고 하여 독특하게 설계된 설상 차를 타야했다. 모두들 거대한 얼음덩어리 속에 서 흘러나오는 수만 년 전의 무공해 팔각수를 맛

보면서 또다시 감탄사를 자아냈다. 벤프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만 하고 4계절 휴양지이자 2002년 6월 세계 G8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도시, 케나나스키로 이동하여 호텔에 투숙했다.

넷째 날. 서둘러 캐나다 첫 국립공원인 벤프 (Banff)로 이동, 벤프는 해발 1,300m에 위치한 캐나다 록키의 관문으로 보우(Bow)강 언저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버팔로거리와 울프거리가 가장 번화가로. 길 쪽에는 상점. 레스토랑이 늘어 서 있었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도 있었 다. 중세귀족의 성과 같은 분위기의 Banff Springs Hotel에는 스코틀랜드 의상을 입고 전 통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있어. 고풍스런 분위 기를 돋워 주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 인근의 보우 (Bow)강과 보우폭포를 찾았다. 보우강은 보우호 수에서 발원하여.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를 거쳐 대서양 연안의 허드슨만으로 흘러간다. 폭 포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강에 있는 보 정도다. 1954년도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촬영장소였 고 세기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주연했다는 사 실로 더 유명해진 것 같다. 먼로의 독특한 포즈의 사진이 있어 우리 아줌마들이 먼로 흉내내는 모

습에 모두들 폭소를 터트리며 셔터를 누른다. 잠 시 먼로를 추억하면서 주제가의 멜로디를 흥얼거 리며 휴식한 후, 해발 2,281m의 슬퍼산(Sulphur) 에 도착, 곤돌라를 타니 8분 만에 전망대에 올랐 다. 거기서 나무계단으로 되어있는 벤프 Sky Walk를 따라 걸어가서 Sanson's Peak(정상)에 이르니, 벤프곤도라 Homepage에 쓰인 "당신은 벤프곤도라에서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산들을 한순간에 볼 수 있다."는 글대로 동서남북 사방에 산들로 꽉 차있었고. 아득히 벤프시가지가 한눈에 보인다. 원더풀, 오마이갓 소리가 또 주위를 시끄 럽게 한다. 정말 이제까지 전망대에서 본 경치 중 에 제일 좋았다. 벤프국립공원에서 제일 큰 미네 왕카호수는 두 개의 인디안 마을이 수장되었다고 해서, 인디안 말로 영혼의 호수, 유령의 물이라고 불리며, 인적이 드물어 조용히 풍경을 즐기기에는 좋은 곳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침엽수가 빽 빽하게 밀집한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 Two Jack Lake, 약 8,000년 전부터 물의 흐름으로 바위가 깎여 형성된 19m의 계곡, 지금 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 암반을 파고 있다는 존스 톤케년을 뒤로하고 Hotel로 돌아왔다.





다섯째 날, 유네스코 세계 10대 절경 중의 하나이고, 영국의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만하는 곳 11위에 오른 루이스호수를 찾았다. 캐나다 록키 관광의 필수코스를 넘어 캐나다 여행의 진수라는 루이스호수, 해발 1,732m에 위치해있고 최대 수심 70m, 길이 2.4km, 폭 1.2km에 메랄드색의 맑은 호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황홀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마력에 끌려 탄성이 저절로 쏟아진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이 눈부신 풍경을 더욱 눈부시게하고 있다. 보고만 떠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모두들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빙하에서 녹아든 물과 모레인이라는 물질이 함유 된 토사가 섞여 호수에 들어가면, 물 밑에 쌓여 있는 광물질과 빛의 반응에 따라 물색이 달라진 다고 한다. 그래서 호수의 물 색깔은 계절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한 옥색부터 청 자색, 사파이어블루 등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진 다.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가진 호수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것 같다.

1884년 빅토리아 여왕의 넷째사위 알버트 공이 이 호수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기아내 Louise Caroline Alberta 공주의 이름을 붙이므로 루이 스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숨 막히게 하는 루이스호수의 잔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호수의 동쪽 기슭에 있는 누 구나 한 번쯤 묵고 가고픈 호텔로 알려진 페어몬 튼 샤토 레이크 루이스 호텔을 찾았다. 높은 천 장. 가구와 장식. 샨데리아까지 모두가 고풍스러 웠으며. 루이스호수가 보이는 라운지 한 쪽에는 하프가 놓여있고, 벽에는 루이스 공주의 사진과 많은 동물의 박제가 걸려 있었다. 창 밖의 호수를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이 여행객의 로망이라 해서 자리를 잡으려 하니. 예약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모래인호 수. 에메랄드호수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아름 다운 호수였고, 요호국립공원에서 강물이 만든 암반 다리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지막으로 록키의 관광을 끝내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서는 모두가 조용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 푹 빠져 스스로 겸손하고 작은 존재가 되어 자연스 럽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합창하며 창조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였다.

여섯째 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 출발지였던 밴쿠버에 도착, 2010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감격에 차 환호성을 지르며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의 좌우명이 '이 또한지나가리라' 라고 했던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다

윗왕이 궁중의 금속 공예사에게 명하여 제작된 반지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글이라 한다. 인 생살이에 닥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실망하지 않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영광에도 자 만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밴쿠버에는 한국 이 주민이 약 50.000명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타운 은 한인상권이 가장 발달된 코퀴들람 노스로드에 위치해 있고, 한글 간판을 단 대형슈퍼를 중심으 로 선물가게, 식당, 여행사, 약국, 은행, 자동차정 비소 등이 있어 그야말로 한국의 어느 거리를 연 상케 했다. 저녁행사에 필요한 음식들과 마실 것 을 구입하고, 붉은 색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중화문을 지나, 독특한 중국식 건물이 즐비한 차 이나타운은 주마간산격으로 통과하고, 밴쿠버시 의 발상지이자 옼드타운인 게스타운(Gastown) 을 향했다. 게스타운은 이곳 최초의 정착자이자 이곳을 발전시킨 죤 데이튼의 별명인 게시 (Gassy, 수다쟁이)의 공로를 기념하여 명명했다 고 한다. 벽돌로 포장된 좁은 도로, 길의 양 옆 유 럽풍의 고풍스런 가게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었 고.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가스등이 15분마다 증 기를 뿜어내면서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는 세계에 서 유일한 증기시계를 보았고, 아름다운 거리상 을 8번이나 수상했다는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 거리였다. 밴쿠버 관광 마지막으로 스테리 파크 를 찾았다. 밴쿠버를 이야기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곳인 스텐리 파크는 1888년 당시 총독인 로드 스 텐리경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장한 밴쿠버의 첫 공원이며, 122만 평 넓이에 년간 800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밴쿠버의 명소라 한다. 울 창한 히말리아 삼나무, 미송나무로 가득찬 원시 림과 빌딩들이 한눈에 보였고. 요트가 즐비한 해 변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었다. 입구에 로 드 스테리경의 동상이 서있었고, 조금 지나자 산 부군가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니 이제부터는 보

책로 안쪽에 많은 토템폴(Tatem pole)이 보였다. 토템폴은 우리나라 장승과 비슷한 모양의 나무에 동물을 조각해 놓은 조형물로 아주 옛날에 이곳 에 살던 인디안부족이 자기부족의 세력과 자기영 역의 경계를 나타내고, 부족의 전설을 표현한 것 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story pole이라 고도 한다. 구세군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할렐루 야 포인트를 지나니. 나인 오클로크 건(Nine O' clock Gun)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과거 밴쿠버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에게 밤 9시가 되면 회 항하라는 신호로 대포를 쏘았다고 하여, 지금도 전통을 살린다는 의미로 밤 9시가 되면 대포를 쏜 다고 쓰여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할아버지가 눈길을 끌었고, 곧이어 프 로스펙트 포인트라는 전방이 좋은 곳에 이른다. 해발 64.5m였지만 산중턱 고급주택가와 라이온 스 게이트 다리. 첫날 빅토리아를 향해 건넜던 조 지해협이 보였다. 스테리공원을 마지막으로 모든 관광을 끝내고 호텔로 향했다.

마지막 날. 내일이면 헤어진다는 아쉬움을 간직 한 채 배쿠버 시내의 아담한 레스토랑에서 한두 해 차이는 있지만. 칠순 기념 디너파티를 가졌다. 예쁜 드레스와 정장을 하고 샨테리아 불빛 아래 원탁에 둘러앉아 록키산을 너무나 좋아해 그의 예명을 록키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인 덴버로 지었 다는 미국의 칸추리송 가수 죤 덴버의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디너파티가 시작되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줌 부끄럼 없는 삶. 이 사회의 어 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자는 신철야의 기도 후 노 화는 쇠퇴가 아니고 생기 넘치는 삶의 한 과정일 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켜 적극적인 삶을 보내자는 건배사와 함께 정영식의 건배에 이어.



다 더 참다운 삶을 살자는 축사가 있었다. 투병생 활 후 건강을 회복하여 새 삶을 얻었다는 Mrs. 남 상규의 우아한 춤 공연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숙 연하게 했으며, 타고난 해학과 기지로 적소적시 에 알맞은 코멘트로 분위기를 부드럽고 재미있게 만드는 정영식 그는 비상한 기억력으로 학창시 절을 회상하며, 한사람 한사람의 특성이나 기질 을 허물없는 정도에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좌중 이 배를 끌어안고 웃게 만들었다. 보통 사람에게 는 무심한 일도 그의 머리를 거쳐 나오면 웃음꽃 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 표출된다. 대학 6년 동안 합창 지휘, 독창, 첼로 연주까지 음악의 달인이었 던 정근영의 무게있는 바리톤 독창을 모두들 숨 죽이며 감상했다. Mrs 최현만께서는 평소 애송 한다는 시낭독을 하여 분위기를 돋우었고, 한 사 람씩 마이크를 쥐고 그 옛날 자신의 애창곡이었 던 흘러간 옛 노래를 불렀고. 복현동의 황량했던 의예과 시절과 본과 때의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감상에 젖었었다. 마 지막으로 동기회 모임에서는 빠질 수 없는 노래. 의예과 과가로 칭했던 '팔공산 푹꺼지고', '역전 서 산격까지'를 합창한 후 재미동기들이 정성들 여 준비한 여행기념 셔츠를 부부가 함께 입고. 기 념촬영을 끝으로 디너파티는 끝을 맺었다.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너무나 많이 웃어

예쁜 여성분들 주름살이 늘지 않았을까. 그렇지 만 엔돌핀은 많이 분비되었으리라 자위해본다. 나무 한 그루도 자리를 옮기면 3년 이상 몸살앓 이를 하고서야 뿌리를 내린다는데, 하물며 사람 이 태어난 모국을 떠나, 땅 다르고, 피부색 다르 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옮겨 앉아 뿌리를 내리려 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많은 어려움을 극 복하고 오늘을 이룬 재미동기들이 무척 자랑스럽 다.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한마디를 가끔 던지 던 정국이가 영문판 Sexual Trauma. A Challange and Insanity를 출간했다는 기쁜 소 식을 전했다. 곧 한국판도 번역 중이라 하니 성추 행이 사회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어 있는 우리 사 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축하드리고 우리 동기 전체의 명예라 생각되어 자랑스럽다.

다음 모임은 5년 뒤. 2016년에 50주년 기념 모임 을 갖기로 결정했으나, 48주년에 다시 만나자는 의견에 모두 찬성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은 정근 영과 박대선 부부가 기꺼이 맡아 수고할 것을 승 낙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 후 호텔 로비에 모두 가 모였다. 일주일간 함께 하는 가운데 아픈 사람 하나 없이 시종 즐겁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었음 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행 장소, 날짜. 여행사 를 정하는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봉사해주신 권기 호 육정혜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행 중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해준 정영식, 여 행 때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준비하여 감격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유문, 그 리고 참석했던 동기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여 다음에는 더 많은 동기들이 모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뜨거운 포옹으로 석별의 인 사를 나누었다.

50 | 동창회보 2012 봄호 | 51

졸업 50주년 회고



글 <u>강석헌(30회)</u> 동문

지난 해 년말 북쪽의 김정일이 갑자기 죽었다고 의 세월 6년! 길게 늘어놓으면 책 1권이 되고도 매스컵에서 북새통을 떨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 신과의 어느 학술모임에 참석하셨던 모 선배님이 "우리 졸업동기는 총무가 가버렸어! 우리 동기는 이제 달랑 2명이 남았네!"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 지 않는다. 이 선배님은 나보다 꼭 10년 연장이시 다. 금년은 우리 동기들이 졸업 50주년을 맞는 해 이다. 5월이면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니 여러 감회 가 없을 수 없다. 강창수 총무가 A4 용지 1매라고 한정해서 원고를 청탁하니. 썼다가 다시 줄이고 다시 또 펜을 들었다 '낭만과 현실 그 질곡(桎梏)

남고, 줄이면 '시험 지옥' 한 구절로 족하리라. 수년 전에 골프 치던 친구가 한담(閑談) 중에. "요 즘에도 시험지 받고는 답을 못 써서 공황상태에 서 식은땀을 흘리는 꿈을 꾼다."고 해서 그 여파 가 참 길기도 한 줄 알겠다! 우리가 의예과에 입 학한 해가 1956년, 입학동기가 80명이라고 기억 된다. 복현동 언덕배기의 덩그런 두 교실이 예과 1,2학년 교실이었다. 교실에서 들은 강의 중에 아 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Josephus habuit Togam variam", "Martha, die Magd sitzt im

Stahl und wacht.". "눈물의 진로". "빵 관리하 는 장관" 등등의 낯선 언어뿐이었고, 쉬는 시간에 는 몇몇 친구들이 담배를 꼬나물고, 축 늘어진 코 스모스 옆에서 무슨 「제3의 사나이」의 주연배우 흉내를 내는 친구들이 서성이는 그런 장면이 떠 오르고 한다. 예과 입학한 지 얼마 안되어 동촌야 유회를 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취 해 추태를 부렸던 기억이 있다. 이튿날 우리 담임 교수였던 식물학 담당 김종호 교수가 흑판에 '酒 道 라고 커다랗게 쓰시고는 술은 부족하다고 느 낄 때 그만 먹으라고 가르치신 기억이 생생하다. 선생님의 이어지는 식물학 강의는 늘 "그러이 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로 끝나곤 했다. 예 과 2년간의 일화야 어찌 이 뿐이랴만은 다 나열 할 수 없다. 아무튼 우리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그때요. 자유롭게 극장엘 드나든 것도 그때 부터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 예과 친구들은 대개 3~4그룹으로 나뉘어진 것 같다. 향학열에 불타 고 교복을 꼭 입고 다니던 모범그룹이 그 첫째요. 이 첫째 그룹과 좀 중첩이 되지만 홍일점 여학생 주변에 늘 자리를 잡고 앉았던 Feminist Group 이 그 둘째지만, K모 형이 그 그룹에 드느냐 아니 냐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면면은 내 눈에 지금도 선연하지만 고유명사는 생략한다. 제3의 그룹은 '피세' 나 까고 뭐 속세를 떠난 '탈 속파'가 있었다. 나는 이 마지막 그룹에 속한다고 자부한다. 아! 슬프다. 그 홍일점이던 지연숙 선 생이 작년에 홀연히 가셨으니! 부군인 노재문 친 구의 상심이야 어찌 말하겠는가! 입학 때 80명이 던 친구 가운데 먼저 가신 고인이 21명이라고 하 니 인생무상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의예과 2년은 한줄기 붉은 구름이 파스텔화로 펼 쳐진 서쪽 하늘의 황혼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 그 아련한 들녘에서 Harry Belafonte가 목쉰 음성으로 부르는 'O! Danny Boy'의 곡조가 들 려오는 것 같은 그런 정경으로 남아 있다. 본과 4 년은 시험불안의 연속이었다. 해부학 구두시험 때 전율 넘치는 나만의 기억도 있다. 나는 조상덕 에 6년 내내 출석번호가 1번이라 구두시험은 예 고 없이 당하던 홍역이었다. 이광직 교수가 시행 하는 골학 구두시험에 6명인가 벌벌 떨고 앉아 있는데 Sacrum. Tibia. Femur… 이러한 골표본 이 책상 위에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용의주도하게(?) Ethmoid Bone(篩骨)을 덥석 잡 고 "여기는 fila olfactoria가 지나가고···"라고 대 충 주어 섬기는데 이 교수의 얼굴이 좀 벌개지더 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됐네. 됐어!" 하시며 ethmoid bone을 신주 모 시듯 도로 빼앗아 가셨다. 알고 보니 그 골표본은 우리학교의 유일본이었다. 내가 사전에 알고 그것 을 덥석 잡은 것 같기도 하다. 2학년 저 유명한 정 창수 교수의 강의 실습시간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 아니던가? 정 교수가 "…를 dissect 하 면"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다이섹트'라고 해서. 내가 당돌하게도 "선생님 발음이 틀렸습니다. '디 섹트'가 맞습니다."고 턱 밑에서 따지고 들었다. 예상 밖에 혼이 나지는 않았지만 친구 몇몇이 나 는 이제 낙제라고 동정어린 충고를 해 주었다. 나 중에 사전을 보니 두 가지 다 맞는 발음이었다. 한 번은 정 교수가 "1번 일어서라! 1번 일어서!" 하면 서 그 유명한 수첩을 들고 호명했다. 뻘쭘하게 일 어섰더니. "강군! 진리가 뭐야?" 하고는 희열(?)에

52 | 동창회보 2012 봄호 | 53 찬 웃음을 지으며, 다시 다그쳤다. 나는 득의에 모 친구는 해부학 책과 안경을 잡힌 일, 약리학시 찬 대답을 했다.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예 과 때 누구한테 철학을 배웠노?" 나는 거침이 없 었다. "하기락 교수에게 배웠습니다." 정 교수의 쾌재가 나왔다. "하기락 교수가 젊은 학생 하나 망쳐 놓았구먼!" 학생들은 조용했다. 그때 웃을 여유가 없었던 것은 그야말로 만고의 진리였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정창수 교수는 그전에 자기 모친이 강씨이고 강씨는 천 재라는 '망상' 을 가지고 있었고, 나 또한 학생이 틀린 답을 하면 선생이 즐거워하리라는 반 망상 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무수한 학생이 나와 같이 혼쭐이 난 경험이 있었으리라. 'Common Bile Duct' 사건이나 "물의 성분이 뭐냐?"는 질 문에 누군가가 "성분이 없는 것이 물입니다."고 해서 혼이 났는데 강자구 형이 "H2O입니다."라 고 해서 칭찬받은 일… 그래서 Autopsy Number 대신에 "Autoby Number"라는 말까지 나왔겠지.

이런 얘기들은 지금은 한가한 소화(笑話)에 불과 하지만 결국은 4.19 이후 '경북대 의대 사태' 란 전대미문의 소요사태로 이어져 그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총장실에서 교수를 린치하고 단 식농성을 한 불미스런 사태가 결국 교수, 학생 양 측의 희생으로 끝났으니. 저간의 옳고 그름은 50 년이 지난 오늘에도 누가 명쾌한 답을 주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상흔을 남기고 간 불행의 역사라 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청춘의 열기를 식힐 방도가 없지 않았으니 '고구 마당구장' 같은 파릇파릇한 3쿳숀 내기 당구에서 공부가 당시 유행이었는데 하루는 우리집과 김석

험 전날(대부분 지날 치기로 이 친구 저 친구 집 으로 몰려다니며. 서로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는 지 물으면서 스스로 위로했지!) 중국집에 가서 잡 채 한 그릇 빼갈 2도꾸리로 취해서 시험은 포기 하고 효성여대 뒷산 주변을 서성이다가 묘령의 여학생 양삼인이 예쁜 파라솔을 제끼고 쉬고 있 는데 JB. YS. LC 그리고 내가 가위. 바위. 보로 교섭하기로 약속하고 결국 JB가 대표로 나가고 우리 셋은 먼발치에서 오마조마 기다리고 있었 다. 한참 후 성과 없이 돌아온 JB에게 물었다. "어떻게 교섭했느냐?" 그 대답이 걸작 중 걸작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우리 네 사람이 박장대소를 하고 허탈하게 내려 왔으니 이렇게 청춘사업은 무위(無爲)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이나 그 때나 우리는 공부나 청춘사업이나 '반거충이' 신 세였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내 가 만약 대표로 갔었다면' 두고두고 생각해 보았 으나 묘책이 아떠올랐지만 그 여학생들 역시 "우 리보다 나은 사람" 없는 걸 몰랐으니 똑똑한 편은 아니었으리라

언덕을 내려오며 패잔병같이 "예수 가라사데 밤 이 오면 천지가 변소니라!" 라고 농을 지껄이며 돌아왔다. 이튿날 약리시험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에 없다. 뭐 시험 문제란들 Rauwolfia Alkaloid 유사한 것이었으니 Cunning은 안해도 재시는 면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일화도 많고 여기 다 기록할 수 없는 사 건도 많다. 시험 기간에 우루루 몰려다니며 합숙 구네 집을 오가다 통금에 걸렸다. 잠시 대구경찰 서에 가서 얘기하고 오면 된다고 해서 순경을 따 라갔다가 경찰서에서 밤새며 시험공부한 일도 있 다. 한겨울 냉방에 4명이 신문지 1장 깔고 꼬박 밤샘한 일은 전무후무하리라. 합숙공부의 특징은 이치민이 단연 독보적 존재였다. "새벽 3시에 깨 워 달라! 조금만 자겠다." 3시, 4시, 5시에 깨워 도 일어섰다가 틱 선채로 넘어진다. 가련해서 그 만두면 아침에 일어나선 안깨워줬다고 원망이다. 김석구는 윗통을 벗고 맨가슴에 Skull을 얹어 두 고는 "foramen, sulkus, fissura…" 라고 중얼 거린다. 그래서 성적은 늘 수석에 가깝다. 나는 야마때리기로 이름이 나 있어 가끔 낯선 친구도 나를 찾아와 묻곤 해서 70~80% 맞춘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기억도 있다.

기나긴 6년이 지나갔다. 나는 원래 의과대학에 취미도 없이 입학하게 됐고, 그래서 3학년 때 정 신과 하기로 결심했지만, 많은 시간을 어둑어둑 한 음악실에서 보냈다. '녹향' 그리고 '하이마 트' 유석하는 음악실에 다음날 시험공부 note를 들고 와서 읽곤 했지만 나는 아예 포기상태로 "설마 될대로 되겠지!" 그런 심리였다. 여유가 있 으면(여유란 막걸리 한 잔 값과 시험이 없는 날을 말함) 자유극장 뒷골목에서 신통한 안주도 없는 막걸리 한 잔하고 비오는 거리를 돌아오는 그런 풍습이 몸에 익었다. 그때 윤석하에게 주워들어 "인상파 미술"이 뭐란 것인지 알았고 까뮈나 싸 르트르도 알았다. 나는 Hermann Hesse 일변도 였으니 문학이란 '문' 자도 몰랐다.

이렇게 4년이란 긴 터널을 용케 빠져나와 80여 명의 친구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 소원영

형의 기억에 의하면 21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미 국에 18명, 서울에 6명, 부산 6명, 포항에 2명, 안동. 진주. 대전에 각 1명. 대구에 30명 가까이 남아있다. 다 모여 옛일을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력서의 '1956~1962 경북대학교 문리과 대학 의예과 및 의과대학'은 우리들의 '시간적 본적' 이다 이제 벌써 5월의 꽃향기와 더불어 주흥이 일어 저 퇴계선생의 시 한 수를 옮기며 이 글을 맺으려 한다. 아쉽게도 시 제목은 잊었으나, "서 당에서 한 잔하고 남은 술 항아리를 친구 〇〇을 만나 달빛아래 쓴다"는 취지였다.

湖月林風相與清 殘樽下馬復同傾 久拌野鶴如雙髮 遮莫隣鷄下五更

호수의 달과 숲에서 부는 바람 다 함께 맑은데 남은 술 항아리를 말을 내려 또 함께 잔 기울인다. 학과 같은 흰머리. 버려둔 지 오래이니 이웃집 닭이야 새벽을 울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아픔은 무엇인가?

면 잰걸음으로 뛰어간다. 소박한 우리민족공동체 의

것 같다 "나는 아니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 구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아픔과 재난을 겪는다. 통 관을 가졌다. 우리의 뼈와 꼭 같다. 우리는 몸 었다. 이로 인하여 아픔을 이겼다. 마디는 아픔이 는 짧은 아픔마디의 단위 때문이라. 마디가 많을 수록 강하다. 대나무 가지의 새순은 반드시 이 마 ₩ 디도 한가지다.

우리는 출생 울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 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구입 원하는 친구가 계시 한 아픔의 마디 몇 개를 품었던가? 각종의 면역 체. 인내력, 포용력, 입 다물기, 용서하기, 격려하 기, 포근히 껴안기, 아픔의 마디는 오히려 성장의 마디, 성숙의 마디일진대 오늘날 어른, 아이, 참 는 이가 적다. 모두 이 과정을 거쳐 성인. 의원이 되었건만 국회-정계에만 가면 성숙한 인격을 버

급한 재난의 기별을 받으 린다. 얼마나 아픔마디를 더 품어야 이 백성이 독 일처럼 성숙한 남북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

아픔은 선물이라고 했다. 「고통이라는 선물」의 식구조다. 나 자신, 가족. 저자 Paul Brand는 정형외과 의사다. 수부외과 동기, 동창, 세상 모두가 하나같이 아픔을 경험했 를 전공한 미국 의사다. 아버지가 인도에서 선교 다.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를 하다 그곳에서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인도에 혼 자남아 남편 하던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 다. 그렇다면 이 땅에 기거하는 인간은 숙명적 고 들 Brand는 마음을 굳혔다. 근육마비, 감각마비 통, 재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가? 내 생각으로는 로 고생하는 인도 나환자의 손과 얼굴. 발을 수술 그렇다. 크고 작은 공동체, 사회, 국가, 하물며 지 하기 위하여 정형외과, 수부외과를 지망하기로, 수료 후 어머니 곁으로 갔다. 한평생 나환자 얼굴. 이 아픔은 무엇인가? 또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손과 발을 수술하다 정년퇴임, 귀국하여 책을 썼 나무도 아프다. 소나무 송진. 고로쇠 수액 등은 다. 「the Gift of the pain, 통감은 하나님의 선 수목의 눈물이다. 우리 눈으로 듣는다. 우리에게 물」, 50년간의 마비된 나환자 치유사역을 통하여 통감이 없으면 편할까?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움 고통을 느끼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나환자들과 살 까? 묻는 자가 없다. 답도 없다. 대나무는 눈물이 아오면서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없다. 울기 싫어 압력과 이력(굽힘)에 저항함 원 _ 큰 선물'이라고, 고통은 우리 몸속에서 뭐가 이상 이 생긴 것을 알려주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 으로 봤다. 원통관도 모자라 균일한 마디를 이루 한 기쁨의 초기 sign이라고.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길고 가는 대나무가 바람에 꺾이지 않는 이유 고. 고통의 소중함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분명해진다고.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C.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아일랜드 출신, Oxford 디에서 나온다. 마디는 재생의 통로다. 인위적 마 모들린대학 교수, Cambridge대학 교수가 쓴 「고 통의 문제,가 있다. 좀 딱딱하여 손톱. 이빨자국 면 Paul Brand 책을 먼저, 다음에 C. S. Lewis의 것을 권함. 2012년은 강건, 성숙한 마디에서 새싹 이 나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Shalom!!

2011. 12. 그믐. csk. 아픔은 성장. 성숙의 마디다.



으로 나타난다.

글 **김태준(38회)** 동문

재미있는 우리말

생각을 한문으로 나타내면 사(思)라고 한다. 생각의 출 처는 바로 마음 심(心)의 밭 전(田)에서 나온다는 말이

다. 사람의 마음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 이라도 그때에 처한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기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생각은 당연히 천태만상

재미있는 우리말에 '차다'는 것이 있다.

- 이 '차다' 말의 뜻은 크게 4가지 있다.
- 가) 빈 그릇에 물건이 차다. (full)
- 나) 발로 어떤 물건을 차다. (kick)
- 다) 몸에 물건을 차다.(간직하다) (hold)
- 라) 대기의 온도가 차다.(낮다) (cool)

다음 예문들 가나다라는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구별해보고 다 맞으면 진정한 문인이다.

1. 기가 차고 2. 매가 차고 3. 숨이 차고 4. 날이 차고 5. 몸이 차다 6. 순사가 칼을 차고 7. 학생 이 공을 차고 8. 거지가 깡통 차고 9. 변소에 똥이 차고 10. 꽃집에 향기가 차다 11. 혀를 차서 욕하 고 12. 자리를 차서 일어나며 13.문을 차서 부수 고 14.수갑 차서 감방 가네. 15. 수박을 차게 하여 먹으니 16. 얼떨덜 입이 차네.

나는 바다회를 좋아한다. 한 번은 횟집 간판에 산 삼삼: 삼삼하게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 오징어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내 여태껏 살아봤 지만 바다오징어는 알아도 산오징어는 들어보기 처음이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산오징어를 보 여 달라고 했다. 횟집주인은 수족관 속에 있는 살 아있는 오징어를 가리켰다. 그때 나는 산오징어

라는 게 살아있는 오징어임을 알았다.

어떤 외국인 두 사람이 내기를 했다. 누가 한국말 을 더 잘하는가이다. 한 사람이 먼저 '인생이 무 엇인가'하는 문제를 내었다. 상대편 친구가 대답 을 하지 못하자 노래에도 있다고 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 르는 것이 인생이라"하면서 철학적으로 답했다. 그러자 상대편이 그럼 내가 비슷한 문제를 내겠 다고 했다. '삶이란 무엇인가.' 3일간 여유기간을 주겠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3일 째 되는 날 추풍령휴게소에서 그 답을 찾았다. 바 로 포장마차집 앞에서 삶은 달걀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삶은 바로 달걀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 삶은 돼지고 기도 있지 않은가. 해답이 많았다.

나는 끝으로 재미있는 우리말로 글짓기를 해보았

열열: 열렬히 사랑했던 그녀가

구구: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더니

팔팔: 팔팔한 젊은 놈을 만나

칠칠 : 칠칠치 못한 나를 두고 육육: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오오: 오오

사사: 사사로운 감정을 잊어버리자

둘둘: 둘둘이 돌담길을 걷던 그 추억을

일일: 일일이 말한들 무엇하리오.

영영: 영영 떠나버린 그녀를!



풀코스마라톤 300회를 완주한 후…



글 _ **박운정(48회)** 동문

1993년 2월 골프를 치는데 필요한 하체운동을 위해 시 작한 달리기는 비만(175cm, 85kg)을 정상체중(67kg)으로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4 월 10일 대구의사회 마라톤 클럽이 탄생하면서 달리기

운동량을 더욱더 늘려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3일 제1회 통일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마라톤을 첫 완주한 이래 2011년 9월 25일 제4회 에코피아 가평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마라톤 300회를 완주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마라톤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능한 한 즐기면서건강을 위해 완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풀코스마라톤 300회를 완주하고 난 후 몇 가지 느낀 점을기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는 말처럼 날마다 세수하듯 뛰고 나면 가끔씩 Runner's high(행복감, 도취감)도 생기고 몸이 상쾌하고 개운해집니다. 마라톤 자체를 즐기려고 하더라도 30km 이후 인내와 고통을 겪지만 완주 1시간 후에는 몸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므로 장시간 등산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른 화끈한 운동으로 완주 후에는 이내 개운해집니다.

둘째, 운동은 저축이 되지 않으므로 부상 없이 지속 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뛰기 전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고 뛰는 도 중 폼과 속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갑작스럽게 깊 고 과도한 스트레칭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야 합니다. 셋째, 세상만사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이를 관리하고 극복하여 매사에 신중하고 긍정적이며 적극 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넷째, 음식은 고칼로리라는 것을 가르쳐주어 비만의 원인. 과식을 방지하고 절제하도록 일깨워줍니다.

다섯째, 매사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라톤 대회 전, 미리 시간마다 한 컵 씩 음료를 마셔야 하고 뛰는 도중에도 체력이 떨어지 거나 갈증이 나기 전에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지 않아 무난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는 마라톤을 심신수양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연하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증진됩니다. 또한 뛰면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구상하여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마라톤 대회는 대부분 상당수준 이상인 동호 인들의 전국적 마라톤축제로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기 록이 비슷하거나 자주 뵙는 분끼리 마음이 서로 통하 여 스스럼없이 악수하고 만나는 전국곳곳 만남의 광 장이 됩니다.

40319

마라톤은 자아의 존재를 깨우치며 나를 이겨내고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토록 해줍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정신력은 삶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남은인생이 아니라 확 바뀐 새로운인생을 여위토록 합니다. 42.195km의 시공간속에서 부질없는 집착을 버리고나 자신의 내면을 찾고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길러줍니다. 달리기가 자기체질에 맞는 동창회원분은 달리기를 생활화하여 항상 활기넘치는 생활을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동굴 탐사

박언휘

설레는 마음으로 경이의 눈동자로

처음 위내시경의 핸들을 잡던 날 창밖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던 두 손과 마음을 다잡으며 "태고의 신비"를 찾아 동굴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던 그 환자의 위장은 단 한 번도 빛이 닿지 않은 공동(空洞)이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요즈음 나에겐 일상이 된 동굴 탐사입니다.

환자의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아는 순간 내 눈동자는 두 배로 키워지고, 마우스피스가 물려진 입구를 지나 조심조심 암흑의 통로로 헤드램프를 비추며 미지의 동굴에 도착합니다.

병소를 놓칠 새라 순간순간 긴장하며 처녀성(處女性)을 뒤지듯 샅샅이 환자의 속을 들여다 봅니다. 종유석이라 이름 지은 〈용종〉이 보입니다. 벽면에는 곧 악마의 숨소리가 들릴 〈장상피화생〉이

보이기도 합니다.

까칠해진 천정과 위축된 바닥, 물기 흐르는 통로, 동 굴의 벽이 울리며 구역질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속을 휜히 다 보았지만.

아직 환자의 속마음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첫눈이 내린 이른 아침 병변을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 했던 그 할아버지가 천수(天壽)를 다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 니다.

오늘도 나는

달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하던 〈날 암스트롱〉이 되어, 내시경 집게로 검사조직을 잘라 담으며, 어두운 거리에 촛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희망의 동굴에 조용히 사랑과 생명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2년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동문이 있습니다. 박언휘(50회) 동문의 수상작 '동굴 탐사'를 소개합니다.

仁峯 金潗 전 동창회장님 영전에 애국·애족·애향적 거인

글 / 동창회 제10~13대 상임이사회 대표 **김장훈(26회), 김두희(29회)** 재배



故 김집 전 동창회장

아! 오늘은 슬프디 슬픈 날이었습니다. 흑룡해의 입추이라 모두의 기대가 컸었는데 저희들에게는 그야말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2012년 2월 4일 오 후 뚜뚜뚜 부음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시기는 1980년 우리 동창회 이사진을 대폭 개선(改選)하면서부 터 불과 8년간이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주신 큰 가르침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대 한체육회와 국회활동이 겹쳐진 시기이기도 합니 다. 따라서 동서양을 자기 집 문전 출입하듯 하시 며 잠은 하늘(空中機內)에서 주무신다면서도 동 창회를 걱정하여 수시로 띄운 엽서를 지금도 고 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회 장님 일생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 영원히 남을 『우리나라 의학 선구자』에 등재되었고 또 자랑스 러운 동문으로 모교교정에 각명(刻銘)되었습니다 만 그 외의 은혜에는 보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 르고 말았습니다.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

회장님은 아무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일을 해내셨 습니다. 우리 동창회의 발흥(勃興)을 위해 모아진 장학금을 법정장학재단으로 만들어 그 바탕을 튼 튼히 하시고 심신을 몰입(沒入)하셔서 그 선두에 서 직접 발로 뛰시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가끔 거

금의 사재를 모교 발전에 수차례 쾌척(快擲)하시 어 그때마다 후배들의 향학(向學) 화경에 큰 도움 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회장님께서는 일생동안 애국(愛國) · 애족(愛族) · 애향(愛鄉)적 거인(巨人) 으로서 체육갓국(體育强國)을 위해 진력(盡力)하 고. 청소년의 건강을 산업부흥(産業復興)으로 이 어 부국(富國)에 일조하시고 자비봉사(慈悲奉什) 를 통해 만인(萬人)평화를 지향(指向)하셨습니다. 피안(彼岸)에서 다시 탄생하실 회장님의 사랑은 후학들의 표상이 되어 가슴속 깊이 각인(刻印)될 것임을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신장 187cm의 거구로 한 장군의 기상을 지녔으면서 소아과를 전공하신 이유를 자계호추 대연지후(雌鷄護雛對鳶之訓)을 따른 것 뿐 즉 시 골에서 자라면서 하늘에서 선회하는 솔개의 공격 을 막기 위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현상을 보 고 '하물며 인간이기에…!', 이 현상이 웅지(雄志) 를 품은 실마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체육진흥을 위한 사회활동도 이런 대의 (大醫)의 꿈을 실천하는 과정과 연관된 것을 짐작 하고도 남았습니다. 유년시절에 느낀 초지를 일 관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다는 것은 유명을 달리 하실 때까지도 한국청소년연맹의 총재(總裁)란

직함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방증(傍證)이 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의 교 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만 범인(凡人)으로 서는 감히 행하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의학을 보완하기 위해 도미하여 성공을 거둔 '염색체 혈액배양에 관한 연구'는 당시 미 국연차소아과학회에서 선택된 10개의 구연(口演) 중 하나로 극찬을 받았으며 김집의 실험(Kim's Test)이라 불리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뜻밖에도 시찰을 온 일본 소아과교수 일행으로부터 그 혈 액배양법을 요코하마(橫濱)의대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아 결과적으로 박사학위(1961년)를 받은 일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생활철 학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 리나라 선조님들의 지혜로 이뤄졌다고 생각했습 니다. 즉 우리나라 고유의 김장방법 중 소금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응용한 이 '혈청 내의 나트륨 함 량에 따라 적혈구의 세포막의 삼투력 변화를 일 으켜 적혈구 용적의 변화를 관찰하는 동물실험 은 곧 우리 민족의 지혜를 만세계에 알리는 계기 를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는 소아 과용 수액채취기구를 직접 만들어 염가로 보급시 키고 신생아 황달의 교환수혈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소아과 임상영역을 그만큼 발전시켰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소아과 진료에만 만족하시지 않고 더 큰 영역인 국민의료단체 육성을 위한 선두에 서 지역의사회장. 대한의협 의장까지 역임하시는 등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체육진 흥읔 위해 심신을 다 바친 의료인이었습니다 첫 소년시절의 육상, 축구, 탁구 선수로서 기성체육 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국의 IOC 부위 원장의 직무까지 수행했습니다. 1981년에는 제11 대 총선에서 체육계 대표로 전국구 국회의원에 피선되어 체육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숙원이었

던 체육진흥법 개정, 그리고 산업보건 육성을 위 한 산업안전보건법 초안 등을 서둘러 의원 입법 하여 노동자의 마그나카르타라 지칭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활건강증진의 바탕을 든든히 하셨습니 다. 만약 이런 작업이 없었던들 그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우보(牛歩)옆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진폐법, 의료법 개정, 아시아경 기대회 및 서울 올림픽대회 특별지원법. 올림픽 조직위원회 활동에 유리한 법적근거 등 국민 건 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모두 의원 입법으로 마련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회기(會期)에 최다수 입법 을 한 의원이란 말을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 고 또 제12대 국회총선에서도 전국구의원으로 재 선되어 또 의료보험법 개정을 입법했습니다. 그 리고 불교계의 전통사찰보존법을 역시 의원 입법 으로 불교계의 민주화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고 는 태릉선수촌에 직접 뛰어들어 선수들을 사랑으 로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웅지를 펼 수 있는 바탕 을 마련한 것은 우리 의료인의 자랑이요. 좁게는 동창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선생은 의사이면서 체육인을 육성하 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체육진흥법 전면 개 정의 주역인 동시에 1984년 LA올림픽.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선수를 위한 태릉선 수촌의 책임을 맡은 바 있고 1988년 올림픽 때는 선수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한국이 올림피아드 4강이라는 신화를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특히 LA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인 헤비급 레슬링 선 수. 하영주 군이 그의 어머니와의 전화연결에서 "엄마! 이제 고생 다 놮다!"라는 그 첫 소감이 TV 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으로 메아리치던 일은 모 두가 '체육진흥법의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지불 조항의 효과' 였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려져 코끝 이 찡해왔습니다.

회장께서는 국민건강정책 수립의 핵심에서 보사

분과위원장과 체육부 장관을 역임하는 동안의 노 음 속 깊이 쌓아두었던 사연과 뜻을 성공적으로 력으로 오늘의 국민건강이 있게 하셨습니다. 뿐 이른 경위를 담았기에 그 기쁨은 모두 우리들의 만 아니라 스포츠의학회를 창립. 초대회장이 되 기쁨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 연구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학술적 뒷 아가 회장께서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부르짖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체 육계의 지적(智的) 주역에서 물러나서는 역시 한 국청소년연맹 총재로 추대되어 1990년부터 8년 간 역임하고 이후 명예총재로 추대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열과 성을 다하여 웅지를 이뤄냈습니다. 모두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정받 아 작게는 경상북도 문화상(체육 부문). 크게는 체육훈장 맹호장(1984년). 체육훈장 청룡장(1986 년). 국민훈장 모란장(1988년). 올림픽훈장(1989 년). 청조근정훈장(1990년)을 수훈한 것은 우리 모든 동문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향년 87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 하시니 우리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으며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상해(詳解)」 출간을 위 시해서「일본을 꺾던 날(1987년)」,「세계 4강에 오르던 날(1989년), 등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마 생(衆生)의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한편 회장님께서는 크나큰 효자(孝子)였습니다. 받침까지도 면밀하게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1926년 1월에 경북 상주 함창에서 전통유가농자 (傳統儒家農者) 김우진(禹鎭) 공과 서경수(京守) 여사의 3남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시어 키워준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3형제가 힘을 합하여 부모의 휘(諱) 첫 글자를 택해 우경(禹京)장학회를 만들어서 해마다 향토에서 장한 어머니. 효자. 효 부, 각 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또 고향의 중·고등학교와 고향출신 의과대학 치과대학 그 리고 체육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해왔습 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인덕 소아과의원장 그리 고 3남매 중 장남 영근 군이 소아과 전문의가 되 어 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와 조카. 사위 등이 의사이고 막내가 약사이니 명실공히 선 생님의 초지를 영원히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애국·애족·애교에 남다른 관심을 쏟던 일을 계속하시고. 역시 우리 동창과 도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물며 부디 극락 의 광명을 온 누리에 비쳐 어둠에서 허덕이는 중



故 문세광 교수님을 추모하며…

글 **박매자(53회)** 동문

전화를 받았다. 문세광 교수님이 별세하셨고 당 신을 학교에 기증하셨으니 빨리 올라와서 준비를 나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쓸쓸함이 감쌌다. 평소 하라는 말씀이 계셨다. 순간, 원장님이 말씀하시 알던 분이든 모르던 분이든 학교로 기증되어 오 는 문세광 선생님을 나의 은사였던 분과 연결시 시는 분들은 내게는 똑같이 대단한 결정을 한 분 킬 수 없었다.

것인지, 내게 선생님은 언제나 그 모습으로만 떠 오르던 터라 선생님이 이제는 나이가 드셨고 돌 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도 받아 게 부담됨은 사실이었다. 들일 수도 없었다

교실 교수들은 해부실습실 앞에서 서로 약간은 어색한 쓸쓸함 속에서 故 문세광 교수님을 기다 려지고. 시신을 모시고 온 파티마병원의 담당자 으로 모시고 와서 더 따라 들어갈 수 없음에 당황 한 채 발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 기다리던 우 리도 또한 어찌 할 줄 모를 당황과 슬픔, 가슴저 려옴을 느꼈다.

'아, 이게 인생인가? 다 내려놓고 가셨구나 육신마저도! 그 육신을 내가 모시고 학생실습을 해야 하는구나!

1월 무척 추운 날 아침. 채성철 원장님의 다급한 25년 이상을 해부실습 담당교수로 살아오면서 육체의 덧없음. 욕망의 덧없음을 수없이 보고 온 으로 생각했고 내가 빚진 분이라 생각하고 학생 그동안 입원치료 받으셨다는 사실도 듣지 못하였 들에게도 그 점을 강조하며 살아왔지만, 인간인 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교수란, 학생과 교수로 지라 아는 분이 오면 가슴이 왠지 더 쓰린 것도 서의 그 시절, 그때의 상황으로만 기억 속에 남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살아생전 결정하신 뜻을 받 들어 귀하게 살려드리는 게 나의 의무이지만 생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기증일 경우 마음이 심하

실상, 말로는 많은 깨달음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아침 일찍 원장님 이하 해부학교실 교수, 병리학 행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육체를 내어 학 생들의 실습재료가 된다는 것. 더구나 자신이 의 학도로, 의사로, 교수로,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 리고 있었다. 영구차에서 하얀포에 덮인 관이 내 는 상태에서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내 앞에 주검을 맡기신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던 는 평생을 모시던 분을 실습실 정문까지 마지막 가? 과연, 선생님은 이렇게 감히 넘어가지 못할 지향점이 될 만한 분이셨던가. 감탄도 되고, 참! 만감이 교차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했다. 설령, 살면서 욕망과 집착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어도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간다는 평 범한 상식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또 한 번 생각 했다. 내가 의식하는 한 이것이 살아있는 날들이 라면, 이 순간 열심히 살고 떠나는 날 하느님이 내게 주셨던 껍질은 이미 헤지고 낡았더라도 필 요한 곳에 주어 용도를 다 하도록 해야겠다는 나 의 오래 전 결심을 꼭 실천해야겠다고

추 **모 사** 03

한국 외과계 거목 박영관(朴永寬) 선생님 영전에

글 _ **최동하(32회)** 동문



故 박영관 선생님

고 박영관(朴永寬) 선생님 영전에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고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영전에 모여 머리를 숙인 저희 후학들은 선생님의 그 후덕하신 인품과 빛나는 유덕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이제 하늘나라로 인도되신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인생은 구름처럼 덧없다는 옛말에 기대어, 저희는 이 비통함을 달래어 봅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 제행무상(諸行無常), 선생님이 남기신 빈자리에 이 가르침을 올려놓고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 1925년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출생하시 어 평양고보를 거쳐 1945년 평양의과대학에 입 학하여 수학하셨으나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 는 바람에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면서 구사일생으 로 살아서 월남하신 후 1954년 경북대학교 의과 대학에 전입하여, 1957년 경북의대를 졸업하시 고, 7년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후 소령으로 전 역하였습니다. 그 후 1969년까지 대구 동산기독 병원 외과 레지던트를 거쳐 1971년 5월에 대구 동산기독병원 외과과장 및 흉부외과 과장, 1981 년에 계명대학 의과대학 외과학교수, 1987년 3월에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으로취임하시어 1990년 병원을 떠나시기까지 20여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오로지 동산병원의 발전과 후학육성에 혼신의 힘을 쏟아 오늘날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진지한 학구열과 생사의 갈림길의 위급한 극한 상황에서 담대하시고 예리하신 판단력, 뛰어나신 수술의 기량은 실로 외과의사의 재질을 두루 구비하신 분으로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1975년 2년여 간 일본 동경대학에 유학하셔서 간장외과, 장기이식외과 및 암외과를 연구하시고 귀국 후 간경화증에 의한 식도정맥류환자의 Sugiura술식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소개해 좋은 성적을 얻음으로써 종래의 shunt술식에서 non-shunt술식으로 판도를 바꾸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셨고, 국내 어느 대학에 못지않은 많은 예와 좋은 성적의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일본 암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대장. 직장암을 비교 연구하여 국제학회에 발

표도 하셨습니다. 1977년부터 1년 6개월간 미국 Lahey Clinic, Mayo Clinic 및 Cleveland Clinic 에 연구시찰 하였으며, 1983년 6개월간 스페인 Madrid 국립암연구소 시찰을 하시는 등 한국 외 과계 특히 영남지방 외과계 발전에 크게 공헌하 였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후학동문들의 교육에 매진, 60여 편의 논문을 대한외과학회지, 계명의대논문집,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중앙의학지, 감염학회지, 최신의학지 등에 발표했습니다. 대구 동산기독병원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산의료원에서 가르침을 받은 60여 명의 문하생들은 한국 도규계 각 분야에서 선생님의 뒤를 이어 오늘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은 매우 기뻐하여 마지않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과동문일동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박영관 선생님이라는 거목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에서 직접, 간접으로수련을 받고, 영향을 받은 외과의들은 언제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1990년 3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정년퇴임하고 10여 년간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 원장으로서, 대구 가야기독병원 명예원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직접 수술하시면서 젊은 의사들을 가 르치신 바 있으며, 그 후 10여 년간 노령에 정정 하시게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던 중 말년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야속한 시 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인생은 구름처럼 덧없다는 옛말에 기대어, 저희 는 이 비통함을 달래어 봅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인 것이 속세의 인연이요. 탄생은 죽음을 잉 태하고 있는 것이 자연의 법도이기에 선생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만. 선생님의 공덕과 온후한 성품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길이길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임하 신 영령이시어. 부디 고이 잠드시옵소서.

> 2012년 2월 25일, 32회 최동하 포항송라요양병원장 드림

故 최용교 박사를 추모하며

글 _ **정영식(34회)** 동문

"앗 무지개다." 누군가 소리쳤다.

지난 12월 4일 오후. 사랑하는 친구를 대전 현충 원 양지 바른 묘지에 묻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였다. 차창 너머로 겨울임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두 병을 양팔에 끼고 날 찾아와 우리는 밤새도록 화창한 날 흰 구름이 떠있는 파란 하늘에 영롱한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 이 세상 마지막 인사를 하 는 듯 무지개 위로 가슴 따뜻한 친구의 환영이 떠 오르고 있었다. 온 몸에 전율과 감동이 물결쳤다.



최용교 박사와 손자의 즐거운 한때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우연은 필연이라 누군 가 말을 했었지. 너와 나 사이의 삶 속에 있었던 우연같은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필연이었지. 1960 잘 의기투합하였었지. 농구를 좋아해서 너는 중 거리 슛터(일명 울러메기 슛)로 나는 리바운드 켓 처로 우린 제법 호흡이 맞았었지. 우리는 노래 부 르기를 무척 좋아하였고 너는 정말 훌륭한 가수 였지. 모임 때마다 언제나 감미로운 노래로 좌중 분위기를 사로잡고 그 후에 곡도 취입해서 테이 프를 선물로 보냈었지, 특히 서울 가든호텔 김희 갑밴드 반주로 노래하는 니 모습을 발견하였을

군의관으로 함께 임관하여 서울 근교에 있을 때 에 거의 매주 만났었지. 너의 월남참전으로 1년 이상 만나지 못하다가 귀국하자마자 비싼 양주 그동안 못다하였던 이야기꽃을 피웠었지. 너의 결혼식 청첩장에 청첩인으로 내 이름을 넣어 나 를 황당하게 하였었고, 무의촌 파견근무 때 아내 가 첫 아이(윤영)를 임신하였다며 왕진 요청하여 태아심음기를 들고 달려갔었지. 서울에서 박사학 위 과정을 같은 교실에서 수료하게 되었고 그래 서 우리는 서울에서 자주 만났고 그때 정말 행복 했었지. 너는 서울의사회 법제이사로. 나는 대구 의사회 의무·보험이사로 의사협회 일로 자주 만 났지. 5년 전 사랑하는 아내의 신장기증으로 신 장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입원 중에 감격에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제일 먼저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하였지.

"영식아! 이제 물도 마실 수 있고 소변도 시원하 게 볼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고 예전같이 즐길 수 있다 년 4월 의예과 동산에서 처음 만난 후 우리는 곧 고 많이 좋아했었지. 그때 수술 후 고통 중에서도 "나의 왼쪽 신장이 남편의 우측 신장에 잘 자리 잡았다니 너무 감사해요"라는 자네 부인의 천사 같은 모습에서 순애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네. 내가 3년 전 심사위원장으로 서울로 오 게 되었을 때.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하며 누구 보다도 제일 기뻐하였었는데… 두 부부가 함께 모여 식사할 때 너희 부부가 손을 잡고 감정몰입 하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부부 노래를 부를 때 내 눈을 의심할 만큼 깜짝 놀랐었지. 우리는 때에는 우리 부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 는 감동과 감격을 느꼈었단다.

두 달 전 미국에서 신철야 부부가 왔을 때 만찬을 베풀며 포도주를 권하며 건강을 감사하며 축배를 들면서 흥겨워하였는데, 쓰러지기 이틀 전 전화 해서 보고 싶다며 3일 후 만날 약속까지 굳게 했 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너와 나의 마지막 대화 가 될 줄이야… 입원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도저 히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중환자실 의 혼수상태의 친구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 파하며 회복을 기원했는데…. 친구의 죽음을 미 리 막지 못한 나의 무능과 미련함에 자꾸만 죄책 감이 스며들었다. 말이 없고 믿음직하고 재능이 많았던 다정했던 친구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자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얼마 전 슬픔 중 가장 큰 사별의 슬픔 속에 있는 단옥숙 여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었다네.

"이별은 아프나 저는 소망을 갖고 최용교의 아내 로서 고인을 욕되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 위의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남편의 체취가 남은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자취가 있기에 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놓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고락을 함께 한 아내의 애절한 사랑과 그 리움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었네. 그 후 미국 의 친구들이 보낸 위로편지와 정성에 깊이 감사 해 하며 여사는 울먹이며 전화해 주었네!

지난 12월 28일. 신경외과분과위원회 모임이 있 을 때 심사위원석의 너의 텅 빈 자리가 너무 크고



1966년 7월 2일 비오는 날, 육군 군의관 임관식에서 왼 쪽부터 신철야, 정영식, 이정두, 故 허탁, 故 최용교, 김세 호 절친들과 함께

쓸쓸하였다네. 회의 시작 전 고인을 애도하는 묵 념의 시간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숙연한 가운데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네. 친구 여 무엇이 급해 그렇게 황망히 떠나가버렸나? 멋진 친구였던 최용교 박사!

이제는 볼 수 없어도 멀리 갔어도 가만히 불러 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이 얼마나 행복했었 는지,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오, 친구를 만날 때 늘 웃음마다 봄날 기쁨이었고 친구를 생각할 때 의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이었소. 떠났어도 기억 되는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하였지. 친구여. 죽음도 다시없고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평안한 쉼 얻으소서. 조만간 우리 도 갈 그곳에서 그대 먼저 영원한 안식 누리소서. 보고싶다. 친구여~~~.

66 | 동창회보 2012 봄호 | 67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동창회비를 완납한 동창회원의 본인상인 경우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3단조화를 보내드립니다.

2011년

9월 20일	이장호(28회)	본인상	11월 18일	김원재(34회)	모친상
9월 30일	김지희(60회)	시모상	11월 28일	박세영(53회)	모친상
10월 5일	정재규(17회)	본인상	11월 29일	김영은(66회)	모친상
	김주열(40회)	모친상	12월 11일	전재복(38회)	모친상
10월 16일	조희웅(39회)	본인상	12월 14일	김동성(21회)	본인상
10월 21일	김미주(51회)	모친상	12월 19일	이광석(65회)	부친상
11월 6일	백인기(37회)	모친상	12월 22일	정영철(42회)	본인상
11월 16일	구본신(52회)	모친상	12월 30일	문세광(25회)	본인상

2012년

1월 5일	송중 원(49회)	부친상	3월 13일	박일균(27회)	본인상
1월 10일	이상훈(51회)	부친상	3월 17일	강중신(25회)	본인상
1월 26일	안재원(25회)	본인상	3월 19일	윤경혁(52회)	본인상
1월 27일	정혜정(75회)	부친상	3월 24일	김동진(32회)	본인상
2월 4일	김 집(16회)	본인상	3월 31일	최영인(36회)	본인상
2월 19일	강은희(45회)	모친상	4월 14일	송광익(51회)	부친상
2월 20일	서준수(40회)	본인상	4월 25일	이형수(22회)	본인상
2월 23일	이두진(46회)	모친상	4월 28일	박민수(66회)	부친상
2월 26일	심재인(58회)	모친상		홍정길(41회)	모친상
	이태현(60회)	부친상	4월 29일	박 우용 (46회)	모친상
2월 28일	안홍남(53회)	부친상	5월 9일	최홍두(26회)	본인상
3월 1일	김계욱(47회)	모친상	5월 10일	최병렬(48회)	부친상
3월 5일	신동수(16회)	본인상	5월 11일	강헌구(53회)	부친상
	김여환(61회)	모친상	5월 12일	박준식(40회)	모친상
3월 6일	한창호(49회)	모친상	5월 21일	백승인(47회)	본인상
				Contract of the same	1

결혼을 축하합니다

2011년

<u></u>					
10월 15일	조성룡(40회)	장남	11월 26일	윤상기(45회)	장남
10월 23일	이상도(50회)	장녀		허 준(70회) 🕽	본인
11월 19일	이 창(46회)	장남		권유진(76회) ∫	근신
	오태원(43회)	장남	12월 24일	전영준(45회) \	차남
	<u></u> 박상열(43회)	장남		김정희(47회) 「	710
		100			
001014	No.				
2012년		V -			
	A P	N I Ca	30 3/G		
1월 14일	김재식(28회)	차남	3월 31일	이효원(76회)	본인
100	성혜령(77회)	본인	,	이수현(76회)	본인
1월 28일	안기성(49회)	장녀	4월 8일	정무달(42회)	장남
2월 18일	정광태(42회)	장남	4월 15일	김택훈(44회)	장남
2월 19일	김 <mark>문수</mark> (45회)	차녀	5월 26일	서보양(41회)	차남
2월 26일	성주경(46회)	장남		김세진(74회)	본인
	윤경혁(<u>5</u> 2회)	장녀	6월 <mark>2</mark> 일	은종 대(42회)	장남
3월 10일	한기환(46회)	장녀			
	김신향(46회)	9 9			
Annual Colors					



BOOK

「희수문집」

김두희(29회) 동문이 회갑기념 문집을 시작으로 그 아호를 딴 제호 성운(惶雲)문집 1~7권을 출간한 바 이번에는 희수를 기하여 8~9집을 추가해 인생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희수문집은 두 권으로 나눠졌다. 희수문집 1 「環境이 나를 만든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惶雲이라는 한 인간의 평가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고 둘째는 교단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환경(社會環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바 일간지 및 기타잡지 또는 여러 서적에 소개된 사연들을 스크랩해 두었던 것을 편년체 형식으로 정리하여 그때 그 시절의 증거로 삼았다. 희수문집 2 「稀喜餘稅」은 고희부터 희수까지, 7년 동안에 이곳저곳에 투고한 것을 한 곳에 모아 수필 논단 메시지 그리고 그동안의 회고 주마등으로 나누어 주옥같은 글들로 꾸며져 있다. 김두희 동문은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로회원으로 추대되어 있고, 경북대 보건대학원장, 동국대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브람스에게 보내는 편지」

서석주(42회) 동문은 그가 일생동안 심취해 있는 '브람스의 삶과 작품'에 관한 종합서를 이번에 「브람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명으로 발간하여, 전 음악애호가들의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50여 년간 음악애호 가로 살아오면서 특히 브람스를 사랑한 저자가 그를 그리며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하여 작곡가 자신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으로 쉽게 풀어낸다.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된 책의 제1부는 작곡가의 삶을 다루는 12편의 편지 형식이며, 제2부는 브람스 주요작품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리를 사랑하는 의사」

조영래(44회) 동문이 「요리를 사랑하는 의사」를 펴냈다. 평소 요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조 동문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정식 요리의 레시피를 그대로 옮겼다. 초보가 초보의 심정을 이해하듯이 음식 만들기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가정식이 소개되었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나 남자라는 핑계로 요리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요리에 도전해보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보라고 조언한다. 책의 판매금은 제작실비를 제외하고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쓰였다.

「위식도 역류와 호흡기 질환」

이원식(45회) 동문이 「위식도 역류와 호흡기 질환」을 펴냈다. 수시로 발생하는 만성 혹은 재발성 감기증상, 생겼다 하면 오래 끌며 낫지 않 는 만성기침은 감기보다 위식도 역류가 아닐까 생각해보라고 전한다. 책 의 전반부에는 항역류 방어 작용과 역류의 발생, 식도감각 생리, 기침 신 경해부학 등에 관한 기초를 설명하고 이어 Barrett식도와 식도암, 비심장성 흉통, 역류와 부정맥, 기침, 천식, 인후두 증상, 소아와 노인의 GERD, 흡인 성폐증후군 등을, 마지막에는 GERD 치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일 차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한다.

「흉강경수술 아틀라스」

전상훈(52회) 동문이 「흉강경수술 아틀라스」를 텍스트와 비디오교재로 만들었다. 흉강내시경수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정적인 그림만으로 구성된 수술 아틀라스는 흉강경수술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한흉강경수술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흉강경수술의 기본에 대한 텍스트교재와 함께 수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비디오교재로 수술 아틀라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비디오교재는 아이폰의 아이콘 형태로 각 챕터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녹화된 깨끗한 수술 동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잘 편집되어 있어, 외국 전문가들로부터도 지금까지 출판된비디오 아틀라스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TBrenner and Rector's THE KIDNEY(9th Edition, Elsevier)_J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권태환(56회) 동문이 신장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교과서인 Brenner and Rector's THE KIDNEY(9th Edition, Elsevier)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덴마크 Aarhus대학교 Soren Nielsen 교수와 공동으로 「Anatomy of the Kidney(Chapter 2)」를 집필하여 2012년 1월에 출판되었으며, 한국인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권태환 동문은 이미 세계적 권위의 신장학 분야의 교과서인 Seldin and Giebish's THE KIDNEY(4th Edition)와 Schrier's Diseases of Kidney and Urinary Tract(7th, 8th Edition)에도 '수분통로단백질 및 체내 수분대사'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 집필진에 참여한 바 있으며 nature, PNAS, 미국생리학회지, 미국신장학회지 등의 학술지에 100여편이 넘는 국제논문을 발표하였다.

장학기금 납부명단

(2012년 5월 9일 기준) 1인 1계좌 포함



2011년 장학기금 모금현황 (단위:				
성명	기수	금액	납부일자	
장태수	29회	1,000,000	10, 20	
김인섭	48회	200,000	10, 20	
김하식	55회	1,000,000	10. 20	
김석구	30회	200,000	10. 21	
정순택	53회	500,000	10. 21	
변영우	42호	1,686,450	10. 24	
북미주		14,721,040	10. 24	
북미주		17,860,080	10. 24	
정현주	55회	3,000,000	11. 8	
김상기	65회	1,000,000	11. 10	
임병우	28회	112,833,254	11. 21	
홍순도	48회	280,000	11. 28	
이수광	35회	3,399,600	11. 30	
문정웅	39회	10,000,000	12, 12	
안문영	48회	5,000,000	12, 12	
조지호	48회	1,000,000	12, 13	

2012년 장학기금 모금현황 (단위: 원				
성명	기수	금액	납부일자	
이형일	49회	200,000	1. 6	
김인섭	48회	200,000	1. 26	
백승찬	52회	10,000,000	2, 2	
지용철	43호	5,000,000	2. 7	
이철상	27회	30,000,000	2, 15	
도종웅	35회	500,000	2, 15	
김익동	19회	5,000,000	2, 27	
이철상	27회	5,000,000	2, 27	
김정식	49호	2,000,000	3. 14	
정영기	36회	2,100,000	3. 19	
김수	38회	2,100,000	3. 19	
송중원	49회	3,000,000	3, 27	
이재경	49회	1,000,000	3. 27	
한창호	49회	1,000,000	3, 27	
이재성	49회	1,000,000	4. 24	

30회 동기회 홈커밍 장학기금 모금현황 (2012년 5월 9일 기준)								(단위 : 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석헌	500,000	김의원	500,000	소원영	500,000	이승욱	500,000
	강자구	\$500	김정휘	500,000	손대익	\$500	이웅길	500,000
	강창수	500,000	김태묵	500,000	송석호	500,000	이정창	500,000
	권득기	500,000	김판석	500,000	송수헌	\$500	이종길	500,000
	권영진	500,000	노대식	\$500	송준철	500,000	이종택	500,000
	권용주	500,000	노재문	\$500	송희재	\$500	이치민	\$500
	김규찬	500,000	노태균	\$1,000	신은식	10,500,000	이학수	500,000
	김규호	500,000	박수연	500,000	신현원	550,000	전병석	500,000
	김도상	10,500,000	박재석	500,000	심규원	\$500	전재규	500,000
	김범주	\$500	박한승	500,000	안종호	500,000	정태수	500,000
	김병화	500,000	박현동	\$500	오장석	500,000	조세환	500,000
	김석구	700,000	박희성	\$500	윤석하	500,000		
	김세현	500,000	박희인	500,000	이관우	\$500	국내동기	40,500,000
	김영기	500,000	배병원	500,000	이상원	500,000	미국동기	8,972,781
	김영수	500,000	서찬수	500,000	이상화	500,000	총합계	49,472,781

동창회 장학금 모금현황 (단위 : 원)						
1억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39회 강덕식 23,300,000				
18회 조운해 146,530,000 25회 노영하 101,200,000 26회 최홍두 101,900,000 28회 김재식 104,800,000 28회 임병우 \$100,100 35회 강백현 \$100+100,000,000 42회 변영우 110,201,850	1회 송명도 17,200,000 3회 이규원 10,000,000 18회 이성구 11,880,000 22회 김연호 \$20,000 22회 최현호 22,000,000 24회 김경환 20,000,000 24회 조준승 11,100,000	39회 문정웅 12,380,000 40회 김징균 19,420,000 40회 박병철 12,200,000 40회 정영섭 \$100+10,000,000 41회 박근목 25,915,000 41회 이상흔 16,320,000 43회 권창운 18,000,000				
5,000만 원 이상	24외 소문증 11,100,000 26회 박노택 14,650,000 26회 백충기 20,200,000 29회 송문원 10,000,000	43회 전성문 18,000,000 43회 지용철 19,150,000 44회 심일청 10,420,000 44회 이윤상 13,320,000				
28회 여웅연,강반 \$76,600+4,200,000	29회정일현11,000,00030회권득기12,300,00030회김도상11,000,000	44회함인석15,580,00045회박진석17,030,00045회변영주,이숙희10,320,000				
28회 이상계 51,620,000 31회 강반,여웅연 \$76,600+4,200,000	30회 신은식 20,290,000 30회 안종호 13,500,000	45회최영욱10,200,00046회김대환11,000,000				
54회 황정한 53,170,000	30회 이웅길 11,220,000 33회 김수용 \$100+10,162,000 33회 김용배 10,200,000	47회김제형10,490,00047회정성광11,687,89148회이숙희,변영주10,320,000				
3,000만 원 이상7회 김만달 45,100,00020회 오창열 40,184,00027회 이철상 35,480,00052회 김봉재 40,000,000	35회 박동술 10,600,000 35회 이원순 11,490,000 36회 이정범 13,700,000 37회 전수한 10,670,000 37회 정성수 10,200,000	49회김종서11,640,00049회송중원18,100,00051회임영미11,780,00052회강병직20,000,00052회민병국10,340,000				

52회	백승찬	12,820,000	38회	권정윤	5,100,000	52회	이종명	6,580,000
52회	이무상	10,000,000	38회	김규태	5,650,000	52회	이택후	5,920,000
53회	조희태	12,000,000	38회	김풍택	7,160,000	52회	조병채	6,740,000
53회	한창희	14,520,000	39회	김난희	6,000,000	52회	하정희	5,840,000
54회	경희수	10,080,000	39회	김능수	5,100,000	53회	김시오	5,000,000
54회	김인겸	21,040,000	39회	정태훈	5,200,000	53회	김용림	5,000,000
56회	김수균	10,000,000	39회	조호철	5,200,000	53회	송경은	6,530,000
58회	이상한	16,320,000	40회	전재은	7,220,000	54회	박낭운	9,050,000
62회	황성주	20,000,00	41회	강임주	6,620,000	54회	하승우	6,010,000
02-4	60T	20,000,00	41회	박윤규	5,620,000	55회	박성근	8,000,000
			41회	고프 II 안성열	6,200,000	56회	이양수	5,480,000
		=1.01.0111	41회	윤영국	5,620,000	58회	김성기	5,600,000
	500	만 원 이상	41회	포o국 홍정길	5,720,000	63회	장우호	5,550,000
2호	신학진	5,000,000				OO코I	STY	3,330,000
13회	박희명	6,720,000	42회	김용주	6,050,000			
13회	서순봉	6,160,000	42회	김철수	6,250,000		300)만 원 이상
16회	김만재	6,400,000	42회	이상호	7,830,000			
17회	안두홍	5,100,000	43회	김보완	6,620,000	5회	이주걸	4,000,000
18회	문시갑	5,200,000	43회	손경식	5,550,000	10회	이동식	3,200,000
18회	박재식	5,600,000	43회	정화선	5,940,000	12회	최기대	3,000,000
18회	이강수	7,690,000	43회	조동규	9,940,000	16회	김집	4,200,000
19회	김익동	9,710,000	43회	조병권	6,840,000	16회	홍선희	3,550,000
22회	임학권	5,200,000	44회	백운이	5,980,000	17회	이기영	3,000,000
25회	박준식	5,200,000	45회	김도원	5,650,000	17회	이상성	3,200,000
26회	김장훈	5,000,000	45회	유완식	7,520,000	18회	김윤준	3,200,000
26회	정봉조	5,250,000	45회	이원길	6,180,000	18회	이철우	3,200,000
26회	조태호	5,100,000	46회	손재경	6,000,000	19회	유호열	3,300,000
27회	이규원	9,383,302	47회	김교선	7,000,000	23회	오학근	4,510,000
27회	정창근	8,760,000	48회	김두환	5,000,000	23회	이상준	3,200,000
31회	백봉수	6,320,000	48회	안문영	5,480,000	25회	변기수	4,200,000
32회	고 안영환	6,480,426	48회	장봉현	5,250,000	25회	서성탁	4,000,000
32회	이종학	5,100,000	48회	채성철	5,000,000	25회	이수동	3,200,000
32회	최동하	5,800,000	49회	강철형	5,100,000	25회	이정호	3,390,000
33회	권오석	7,200,000	49회	배한익	5,150,000	26회	강성규	3,200,000
33회	는 <u></u> 박진웅	6,100,000	49회	서장수	6,720,000	26회	송경오	3,000,000
33회	기년 이규보	7,100,000	49회	조영수	6,000,000	26회	정태호	3,450,000
33회	정상립	7,100,000	50회	김정철	5,280,000	26회	황일우	3,840,000
34회	박대선,정		50회	손윤경	7,200,000	28회	김형규	3,320,000
04외	극대간, 전		50회	이만기	6,250,000	28회	최중식	\$200+3,000,000
0.4=1	저그어ㅂ	\$2,400+3,000,000	50회	이유철	6,940,000	29회	김병권	3,100,000
34회	정근영,박		50회	이인규	5,100,000	29회	정준모	4,100,000
ا ا	저스포	\$2,400+3,000,000	50회	이재태	7,390,000	30회	김병화	3,300,000
35회	정수진	\$4,600	51회	고삼규	7,460,000	30회	소원영	3,320,000
36회	이영하	5,100,000	51회	김신윤	6,000,000	30회	오장석	4,300,000
37회	박의현	6,100,000	52회	김인산	8,780,000	30회	이승욱	3,700,000
37회	정동일	6,000,000	52회	박재용	5,580,000	30회	이종택	3,220,000
37회	최용환	6,580,000	52회	송국평	5,000,000	30회	조세환	4,100,000
				0 10	-,000,000	00-1	11 L	r, 100,000

31ই	9 양성기	3,200,000	45회	정기묵	3,000,000	57회	이양현	3,000,000
323	김희태	3,960,000	45회	채종민	3,000,000	58회	구태본	3,400,000
323	회 서태준	\$3,000	46회	김인택	3,620,000	58회	양은경	4,150,000
323	회 장세국	4,600,000	46회	신세원	3,150,000	59회	공현희	4,000,000
323	조태환	3,100,000	46회	이인걸	3,380,000	59회	김철현	3,550,000
323	채병식	3,000,000	46회	이재백	4,390,000	59회	한형수	3,000,000
333	회 김상철	3,100,000	47회	김종호	3,800,000	62회	곽선영	3,150,000
333	회 김형우	3,500,000	47회	정영환	3,850,000	63회	유은상	3,580,000
333	회 이수광	\$3,200	48회	조지호	3,000,000			
333	회 이죽내	3,100,000	49회	고철우	3,870,000			
333	회 정재룡	3,200,000	49회	김기산	3,100,000			
333	회 정종학	3,100,000	49회	김정식	3,600,000			
363	회 박도수	4,000,000	49회	이관식	4,640,000			
363	백용현	4,820,000	49회	조정현	4,000,000			
363	회 정영기	4,900,000	50회	길영태	3,450,000			
373	김종률	4,420,000	50회	박문흠	3,940,000			
375	신홍식	4,360,000	51회	김재왕	4,960,000			
375	이동구	3,400,000	51회	장대성	4,030,000			
373	이 제욱	\$3,200+1,000,000	51회	정인권	3,000,000			
373	회 정윤기	\$1,000+3,367,200	51회	허달영	3,900,000			
383	회 김수	3,100,000	52회	박성파	4,000,000			
393	회 곽정식	3,600,000	52회	백원진	3,200,000			
393	회 박순천	4,010,000	52회	정태훈	3,450,000			
393	회 이종태	3,000,000	52회	최정규	3,340,000			
403		4,320,000	53회	박세영	3,600,000			
403		3,000,000	53회	서중환	3,910,000			
41호		3,490,000	53회	정순택	3,020,000			
41호		3,830,000	54회	권영오	3,980,000			
41호		4,000,000	54회	서희석	3,000,000			
41호		3,000,000	54회	성기영	3,400,000			
41호		4,220,000	54회	이상민	3,010,000			
423		3,640,000	54회	정홍우	3,530,000			
423		3,050,000	54회	최동호	3,230,000			
423		4,240,000	55회	김신우	3,000,000			
423		3,500,000	55회	김하식	3,000,000			
433		4,240,000	55회	이석종	3,580,000			
433		3,980,000	55회	정현주	3,000,000			
433		3,780,000	56회	권태균	4,540,000			
433		3,750,000	56회	권태환	3,410,000			
433		3,250,000	56회	박헌식	3,000,000			
443		3,480,000	56회	임동건	4,600,000			
443		4,240,000	56회	홍원표	3,000,000			
443		4,640,000	57회	김문규	3,150,000			
453		4,000,000	57회	김정열	3,500,000			
453		3,220,000	57회	박태인	3,350,000			
453	박병규	3,000,000	57회	이병헌	3,580,000			

1인 1계좌 모금 현황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월 1만 원 자동이체 약정운동에 동문 모두가 참여합시다. ※()는 계좌 수 (2012년 4월 15일 기준)

동창회는 1인 1계좌 장학금 3,000계좌를 목표로 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님들께서 1인 1계좌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여력이 되시는 동문은 2계좌 이상 가입해주시면 장학금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장학금 참여 동문님들에게 일련번호가 새겨진 장학금 참여 포스터 2매를 발송하였으며 많은 동문님들의 병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13회	박희명	34회	강행복, 고경환, 김수길, 김충남, 최호섭		박재식, 박재우, 방인화, 백태원, 손경식,		배홍갑, 서병헌, 서장수, 손석수, 손찬락,
17회	최경달	35회	김대조, 김무현, 김상도, 김영희, 김용언,		우성구, 윤덕구, 이광숙, 장병준, 장사상,		송국현, 신제균, 안욱, 오수희, 오영철,
18회	이강수, 이동식, 이상재, 이성구, 전기영,		김장환, 도종웅, 박동술, 박영남, 이두룡,		전상식, 전진곤,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이관식, 이봉우, 이정국, 임재양, 정상윤,
	조운해		이원순, 장충광		조영철, 지용철, 최시호, 하인선		천 종률
19회	김익동, 김한동, 류명하, 배수동	36회	견일수, 박형규, 백용현, 손건부, 이창수	44회	강신수, 곽규식, 김경선, 김광훈, 김법완,	50회	권영근(2), 강동기, 곽정호, 길영태, 김규상,
20회	정우	37회	백인기(3), 권굉우, 김정만, 김종률, 박기호,		김재도, 김지홍, 박광우, 배형일, 백상헌,		김금주, 김삼열, 김상유, 김재연, 김재황,
22회	정희곤		박노선, 박동성, 신홍식, 안영규, 이귀란,		백운이, 심일청, 오천석, 이경화, 이석균,		김정철, 김 종윤 , 김종흥, 박문흠, 서노교,
23회	김희철, 오학술		이동구, 전수한, 최용환, 하청길		이웅렬, 이윤상, 이정권, 이정규, 임탕식,		서억수, 서정욱, 안기영, 유빈서, 이동길,
24회	정균용, 함덕상	38회	김관식, 김규태, 김태곤, 이승호, 이원기,		전명숙, 조영래, 함인석, 홍승근		이유철, 이의효, 이재태, 정병욱, 조현숙,
25회	변기수(10), 박정열, 이정호, 장경식, 최형곤		정영복, 최성협	45회	김홍태(2), 이기호(2), 고봉환, 김광우,		최영택, 추동호, 함희원, 황용순
26회	박노택(5), 이우홍(2), 곽각순, 김재수, 정회교,	39회	곽정식(5), 강덕식, 문정웅, 박노삼, 박순천,		김도원, 김성화, 김용순, 김종훈, 김행미,	51회	강성희, 강인구, 고삼규, 권오종, 권일훈,
	황일우		박진현, 전의식, 조남근		남상재, 박진석, 배선익, 백철운, 신현주,		권태우, 김광만, 김대연, 김동석, 김무원,
27회	김경수, 박근수, 박재호, 성창섭, 이병채,	40회	김징균(10), 최수승(10), 김종환(5), 정재화(3),		안도환, 유성호, 유완식, 이병수, 이원길,		김병헌, 김병화, 김인영, 김장락, 김재왕,
	이재복, 이재양, 이철상, 정승환, 정창근,		김옥동(2), 김완섭(2), 김일경(2), 도재욱(2),		이종태, 이호성, 정만진, 하종섭, 허정욱,		김태준, 박만규, 박봉기, 박성민, 방종경,
	조한제, 최수년, 하근수, 황한호		서정규(2), 전재은(2), 곽재영, 김성호, 김재숭,		황성규		서순애, 성후식, 손희철, 송광익, 양상호,
28회	김선홍(2), 김형규(2), 곽동 수, 구종 수,		김홍조, 김희숙, 도영구, 박영호, 손승원,	46회	이인걸(11), 박태정(3), 고병구, 김석찬,		양원병, 오동원, 유경재, 윤여득, 이경민,
	김재식, 김희교, 노수열, 염우권, 윤영길,		유병욱, 윤병철, 이승기, 장길동, 전석길,		김세웅, 김인택, 김중구, 성주경, 이재백,		이경수, 이경영, 이기만, 이명우, 이성희,
	이상계, 이재창, 정용국, 한근섭		조규홍, 한승세		이재석, 이창, 정준헌		이우녕, 이원석, 이재구, 이헌수, 임영미,
29회	김두희, 김홍웅, 박병덕, 박상곤, 박영춘,	41회	박근목(15), 안성열(10), 이상흔(2), 강임주,	47회	조희중(2), 신순희(2), 정영환(2), 이준희,		임청호, 장기호, 장대성, 장병원, 정수영,
	박진상, 백영수, 송화복, 예민해, 유병철,		김경년, 김곤홍, 김성학, 김세환, 김시열,		정만홍, 김장희, 백승인, 강상대, 김종호,		정웅표, 정철희, 조충래, 지성구, 최성근,
	이강목, 이건화, 이경수, 이승도, 이종수,		박경동, 박윤규, 박일수, 배재기, 배효근,		최광호, 김용신, 남복동, 전민, 유영구,		한금주, 한상철, 허달영, 홍성태, 홍영애,
	이진관		백명규, 백옥지, 변인수, 안기헌, 여운재,		정지윤, 이재준		황영목
30회	강창수, 권득기, 권용주, 김규호, 김도상,		오상염, 윤영국, 이건수, 이동수, 이상도,	48회	김항재(10), 김원섭(3), 권영철, 김복연,	52회	곽동협(5), 권경훈(5), 기세길(5), 도은식(5),
	김병화, 김석구, 김세현, 김의원, 박수연,		이상범, 이재우, 장봉국, 장한기, 최광식,		김인호, 김일환, 김지성, 김창윤, 류수현,		손구현(5), 최상호(5), 강민구(3), 구본신(3),
	배병원, 소원영, 신은식, 안원호, 오장석,		최덕현, 최한용, 홍정길, 황규흥		문병천, 박준호, 박창융, 서경진, 손계학,		김경식(3), 김철규(3), 김헌수(3), 박일순(3),
	이상원, 이상화, 이웅길, 이종길, 이종택,	42회	변영우(10), 이상호(5), 임해수(5), 김철수(2),		손혜경, 신명숙, 안문영, 양승윤, 이경열,		박재율(3), 최일석(3), 전상중(3), 함소희(3),
	이학수, 전병석, 조세환		이규인(2), 정제명(2), 김용탁, 김의홍, 김종식,		이규원, 이내호, 이동헌, 이숙희, 이왕복,		권순훤(2), 김영조(2), 김종호(2), 나건연(2),
31회	백봉수(2), 김봉석, 안재두, 이상원, 이용권,		김철규, 문덕균, 서석주, 송재권, 은종대,		이우형, 이윤순, 조영섭, 최성만, 탁기식,		남문진(2), 박창근(2), 배성일(2), 백승찬(2),
	이채현		이광열, 이정근, 정무달, 최병연, 최원석,		하정상, 홍순도		이기훈(2), 이성원(2), 이장철(2), 이택후(2),
32회	김희태(5), 신현국, 이규신, 정재영, 최동하		추연만, 현성택	49회	강명수, 권세일, 김종서, 김진우, 김현준,		장원표(2), 장해운(2), 정종철(2), 조완석(2),
33회	김이민, 김형우, 이석강, 이학용, 최명부	43회	권종수, 김기주, 김보완, 박노문, 박동철,		김혜영, 김호준, 박원대, 박장환, 박정태,		추진신(2), 곽시영, 곽철승, 김기홍, 김동억,

1인 1계좌 모금 현황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월 1만 원 자동이체 약정운동에 동문 모두가 참여합시다. ※()는 계좌 수 (2012년 4월 15일 기준)

	김상근, 김순덕, 김승일, 김인산, 김재홍,		정일경, 정창수, 조근태, 지용대, 채영수,		유선오, 유진태, 이강경, 이강룡, 이기준,		이정은, 전보영, 정운선, 조지형, 황승욱
	김종일, 남혜주, 민병국, 박동보, 박승준,		천종욱, 최동호, 최진교, 최창혁, 하승우,		이명선, 이미정, 이상미, 이원호, 이장규,	68회	남순영, 성우진, 이원채, 이재일, 정병진,
	박우용, 박재용, 이상평, 이우기, 이재동,		허용진, 홍성범, 황보근		이춘대, 장지훈, 전은주, 전홍배, 조영미,		하성조
	이정안, 이종명, 이종오, 전상훈, 전시열,	55회	금종명(10), 현명섭(5), 장재권(2), 구본섭,		지문종, 차승익, 최현곤	69회	권도엽, 이학성, 장윤환, 정덕원, 조민정
	정경희, 정명희, 정용식, 조병채, 최병흔,		김문수, 김상훈, 김승업, 김정수, 김창호,	60회	강천일, 권대구, 김경주, 김기연, 김보미,	70회	김유경, 신영아, 최희정
	최정규, 하정희, 홍성권, 황윤진		김태상, 문성두, 배도호, 성영호, 오형호,		김소희, 김정구, 김정근, 김정연, 김진수,	73회	서창우
53회	강헌구, 강희천, 권영식, 권종설, 금학조,		윤광명, 이석종, 이성락, 이재혁, 이정형,		김항진, 문덕복, 박찬정, 서현주, 손봉준 ,	74회	강경모, 권문혁, 김수정, 김한바로, 김호찬,
	김경률, 김규태, 김동찬, 김명성, 김세연,		이종흔, 이충형, 장필식, 전일훈, 정세주,		신동필, 신상훈, 신재필, 이경림, 이광자,		김홍식, 문유호, 박가영, 박동찬, 서관용,
	김숙영, 김시오, 김영호, 김원태, 김재선,		정태호, 최규석, 최병호, 최율제, 한수일,		이숙희, 이응배, 이태현, 정기제, 정동휘,		서안나, 서원우, 신미선, 안용철, 윤지원,
	김정란, 김정용, 김종원, 김희진, 나병천,		황형식		정보우, 정재호, 조유숙, 한정훈		이정훈, 임재광, 조윤정, 조인지, 지성근,
	류형우, 박민하, 박병규, 박세영, 박세협,	56회	강창성, 권태균, 권태환, 금동윤, 김병철,	61회	제석준(2), 강지원, 강현욱, 김광훈, 김기영,		최연경, 최재영, 최재혁, 현효진, 홍영기
	박창순, 배재용, 변정환, 서경란, 서중환,		김익수, 김인환, 김정국, 김정수, 김창희,		김병준, 김수지, 김영탁, 김준홍, 변재호,	75회	이경민
	서창수, 손경호, 손수준, 손윤호, 손진호,		남창우, 도황, 박완섭, 박재현, 이국형,		송광수, 신태현, 윤종수, 이영실, 이종우,	76회	강민지, 강종완, 김성욱, 박효민, 이경민,
	송경은, 송정흡, 신창재, 신현석, 안중걸,		이양수, 이운기, 이종곤, 임동건, 천근수		이준화, 전영훈, 정진용, 하영애, 홍순만		이준호, 장세영, 황두연
	여성우, 오두종, 오연희, 윤상열, 윤창섭,	57회	김성중(2), 박태인(2), 박형근(2), 김동희,	62회	곽선영(5), 남근하(5), 권성희(2), 박성빈,	77회	고경균, 김미선, 김민지, 김세현, 김준영,
	이경옥, 이구희, 이대원, 이명구, 이민석,		김수영, 김영애, 김용태, 박병준, 박성식,		박진형, 손희강, 안원일, 이건희, 이응창,		김지현, 노진, 배수현, 석준호, 여인환,
	이민재, 이성구, 이정기, 이창영, 이철,		박준구, 서선교, 서종수, 성이경, 송준화,		정태균, 조병욱		이경규, 이용훈, 이정원, 이현정, 홍채문
	이태규, 이형욱, 정순택, 정호영, 조현열,		우언조, 이덕희, 이병헌, 이승걸, 이양일,	63회	곽경필, 구지영, 권소정, 김건엽, 김은경,	78회	권영기, 김도훈, 김병철, 김보연, 김숙경,
	차호, 최성관, 한승범, 현향숙, 홍경순,		이종민, 정춘식, 주성진, 천임순, 최성곤,		김종열, 김찬덕, 나승찬, 노현주, 손재희,		김아람, 김지은, 김창연, 김현미, 나주용,
	홍기영, 홍주희, 황준하		허현준		유은상, 윤영묵, 이정미, 장우호, 조재현		박은희, 박정규, 오홍근, 이숙희, 임정아,
54회	김인겸(5), 오승열(3), 권영수(2), 김동철(2),	58회	이상한(10), 김성기(5), 구기영, 권오수,	64회	이정호(2), 권동수, 박선희, 박성현, 박재홍,		전호종, 정윤영, 정현철, 진영주, 채상훈,
	김병곤(2), 이영미(2), 정홍우(2), 강대욱 ,		김문규, 김준홍, 김탁관, 류상건, 박서정,		반정민, 서문정, 신경순, 신무철, 심삼도,		최영연, 최주열
	경희수, 권영오, 김수동, 김시열, 김영진,		박용주, 박정석, 박창열, 배성곤, 서영익,		여원욱, 이규엽, 이명권, 이영두, 이호원,	79회	권오영, 김도형, 김명수, 김한나, 박경민,
	김영환, 김재홍, 김준욱, 김태형, 김형표,		서을주, 서효숙, 신현수, 안승훈, 윤상흠,		전성우, 제갈양진		박아영, 송승호, 윤가영, 이은지, 최선하,
	남윤성, 도용희, 류춘욱, 마도훈, 박낭운,		이대원, 이성원, 이주형, 이헌춘, 정병룡,	65회	곽경화, 김상기, 김주경, 김찬중, 류정임,		최우곤, 황승현
	박순우, 박순원, 박정배, 백효종, 서강석,		한영철, 황정현		박대홍, 이동규, 이상민, 이선호, 정원욱,	80회	강동진, 권정은, 김기범, 김세훈, 김승범,
	성기영, 성승모, 손병우, 손효돈, 신영철,	59회	강원순, 강준형, 권성우, 김경환, 김대현,		조준형, 조희준, 채포희		김윤안, 김재환, 김정심, 김종헌, 김홍년,
	심영보, 양완석, 여민희, 오태윤, 유병애,		김삼식, 김성우, 김정균, 김정민, 김 종근 ,	66회	정영원(10), 김상옥, 김세영, 김영은,		박정화, 박찬호, 안수현, 안정민, 오효정,
	유영수, 윤경철, 윤정수, 이경호, 이상민,		김철현, 김하균, 김학수, 노동우, 류영호,		백승훈, 윤창호, 이상철, 이수현, 이진우,		유병혁, 윤덕근, 윤현수, 이명숙, 이유진,
	이승재, 이영석, 이은영, 이재흠, 장금미,		문상웅, 박미영, 박용진, 백승희, 백인화,		조민현		이종인, 이혜림, 정승연, 정혜진, 최연주,
	장인석, 장현정, 정동일, 정두선, 정상득,		서인경, 서중산, 서혁준, 손성대, 안형수,	67회	문성수, 문준호, 송승훈, 이승훈, 이용직,		최우찬, 최준설, 탁지영, 황종문
						타교	김갑철

※ 간 기벽 회장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통창회 사무식로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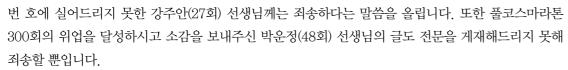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기별 동기회장단 2012년 5월

호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3	박희명		대구 중구 대봉1동 111-1 청운맨션 3-802	053-424-8939
16	홍선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7동 303호	02-535-0827
17	안두홍		대구 북구 침산3동 233-3 동아2차무지개아파트 206-803	053-351-7989
18	이동식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수성보성타운 107-503	053-741-5471
19	김익동	세강병원	대구 달서구 송현동 56-2	053-620-6203
	서휘수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13 월성우방아파트 102-406	053-634-0644
21	김동성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수성보성타운 107-1202	053-751-8883
23	김희철	이현연합의원	대구 서구 평리6동 573-5(2층)	053-555-3397
24	조준승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1-1601	053-745-1609
25	오태환		대구 수성구 만촌동 1429-6 메트로팔레스 209-1001	053-741-0510
26	김상하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65-22	053-751-0176
27	이철상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아파트 12-602	053-766-3666
	김경수	낙타연합정형외과의원	대구 동구 신천3동 142-3	053-756-3000
28	박진홍	박진홍정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종로1가 41	053-257-2135
29	정준모	경북대학교 건강증진센터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2-1141
	박영춘		대구 중구 남산4동 황실타운아파트 108-202	053-253-5905
30	김병화	광제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중구 공평동 88-1	053-422-2431
	강창수		대구 중구 대봉동 111-1 청운맨션 1-1205	053-423-3155
31	김영명	명인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 남구 봉덕동 929-4 명인빌딩 3층	053-471-7409
32	정인호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508-205	053-765-3360
33	양의석	양이비인후과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52-8	054-332-9090
	정해명	수강외과의원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96-324	053-743-9200
34	이원무	효경G병원 응급의학과	대구 동구 효목2동 629-1	053-746-3232
	김원재		대구 중구 남산4동 2269-11	053-252-6100
35	김무현	김무현안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26-1	053-965-9515
	장병희	경산수요양병원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9-34	053-815-1088
36	권국현	한패밀리병원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54-5	053-763-2000
	심청택	심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중구 종로1가 41-34	053-254-7272
37	정성수	정성수산부인과의원	대구 남구 봉덕2동 536-10	053-471-3301
	문종웅		대구 수성구 범어4동 명문빌라 신세계타운 6-107	053-753-9172
38	김민상	김민상외과의원	대구 북구 산격4동 1429-19	053-941-3893
	김풍택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632
39	곽정식		대구 수성구 만촌1동 617-23	011-819-4887
	안종철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053-628-4020
40	도영구	도외과의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191	053–581–7001
	서정규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761
41	장성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내과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053-650-4030
	김징현	세강병원 내과	대구 달서구 송현동 56-2	053-620-6101
42	정무달	정무달외과의원	대구 수성구 중동 47-1 두래빌딩 1층	053-762-3003
	송재권	송이비인후과의원	대구 동구 신암동 592-2	053-954-7575
43	장병준	장병준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0-14	053-521-4300
	이진식	달서정형외과의원	대구 달서구 감삼동 105-4	053-566-6767
44	여형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053-650-4254
	배형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 E-2602	053-756-5027

설명 변설명 주소 전용127-50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72 03-420-6655 03-420-6600 03-420-6635 03				※ 각 기별 회장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용통 지노메디아성병원 대구 수상구 만본1동 1356-17 053-177-2000 053-107-2000 1294 한국원 사업의원 대구 중구 설득호27 50 053-107-2056 1294 한국원 사업의원 대구 달자 두대통 483-1 053-554-001 1294 한국원 사업의원 대구 달자 두대통 483-1 053-555-2039 1294 한국원 사업의원 대구 달자 주장 8년동 194 053-250-7222 1294	회	성명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46 상유경 강보시다의교병원 산명외과 대구 중구 삼대동2가 50 053-420-5665 1284 반국병사신과의원 대구 발사구 두류등 489-1 053-554-0011 1287 구동55 1280-2 1280-1 1280-2 12	45	이종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672
전염보 한국방사산과의원 대구 달사구 두류동 493-1 063-564-0011 대구 당시 주류동 493-1 1062-4019 대구 당시 절등군기 296-2 063-755-2639 1052-2019 대구 당기 절성동간기 296-2 063-755-2639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755-7638 1053-260-7222 1053-260-2022 1053-260-		이종룡	지노메디여성병원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56-17	053-757-2000
대구 보고 전용서 제상대보고 통신의료인 진단검사의학과 대구 보고 동산병 194 (1.7 등록 중심병 194 (1.7))))))))))))))))))))))))))))))))))))	46	성주경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655
전통사 개명대학교 통신의료원 잔단검사의학과 대구 중구 통신통 194 053-250-7222 1 대구 상가 수성도 4가 990-1 053-752-7888 1 대구 상가 수성도 4가 990-1 053-752-7888 1 대구 당사로 사제리 134-1 053-752-7888 1 대구 당사로 사제리 134-1 053-752-7888 1 대구 당사로 사제리 134-1 053-752-7888 1 대구 당사로 산업통 755-4 053-638-785 0 대개 이 여행원 대구 당사로 산업통 755-4 0 633-638-785 0 대개 이 여행원 대구 당사로 산업통 755-4 0 633-638-785 0 633-628-8119 0 648 전략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대구 당사로 산업통 755-4 0 633-628-8119 0 634-221-4850 0 63		강명석	한국방사선과의원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3-1	053-554-0011
설심 집복인 기록인	47	김영근	김영근소아과	대구 북구 칠성동2가 296-2	053-755-2639
### ### #############################		전동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대구 중구 동산동 194	053-250-7222
변창호 한참호소이청소년과의원 대구 달사구 성인동 755-4 053-629-2785 이재경 미자병원 대구 당사구 성인동 695-36 053-629-8119 이유형 기타병원 대구 당사가 성당동 695-36 053-629-8119 이유형 기타병원 대구 당사가 생당동 671-40 053-555-6008 이유형 경택대학교 의학전단대학원 미생물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843 전략 보통한 기타양원 기타양원 기타양원 기타양원 기타양원 기타양원 기타양원 기타양원	48	김복연	김복연이비인후과의원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990-1	053-753-7588
이재경 미주병원 대구 일사구 성명동 695-36 053-629-8119 10 10 10 10 10 10 10		최병렬	서재한마음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34-1	053-585-2669
50 우영훈 서대구영상의학교의원 대구 서구 내당3동 871-40 053-655-6008 51 김행만 자목교의원 검복 포항시 남구 자목동 949 064-2221-4850 28 경향수 강하수비교기교의원 대구 복구 태전동 1003-1 053-321-0602 52 정태훈 정태훈시대의원 대구 보구 환전동 1003-1 053-321-0602 53 이철 정태훈시대의원 대구 보가 모원동 748 053-630-7000 53 이철 동산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84-6 064-336-0075 64 이상민 메디라트내과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84-6 064-336-0075 54 이상민 메디라트내과의원 대구 중구 상덕동가 39-14 053-626-1275 21인경 정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악리학교실 대구 중구 대봉통 23-7 파이론발당 4층 053-422-4833 박보원 보순원 병소원인과 대구 중구 대봉통 23-7 파이론발당 4층 053-422-4833 55 이명기 로즈미리병원 산부인과 대구 로가 모원동 1436-2 053-611-551 56 사천호 서천호성형의과 경토 경소사 중청통 851-4 053-614-5810 57 이양일 나시청안합내과의원 대구 보사구 장기동 556-5 053-651-16800 58 장덕진 그런比上기과의원 대구 보사	49	한창호	한창호소아청소년과의원	대구 달서구 상인동 755-4	053-638-2785
이유철 경복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생물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843 전후 포항시 남구 지목동 949 064-221-4950 064-221-4950 28 전하시 나기과의원 대구 북구 태전동 1003-1 053-3221-0602 053-425-6678 박동보 대구보호병원 외과 대구 당서도 원동 748 053-637-7000 064-336-0075 064 075-6678 18 전 17 만원부도 원동 748 053-630-7000 064-336-0075 064 075-0678		이재경	미주병원	대구 달서구 성당동 695-36	053-629-8119
2 2 2 3 3 3 3 4 3 3 4 4	50	우영훈	서대구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서구 내당3동 871-40	053-555-6008
28		이유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843
52 정태훈 정태훈내과의원 대구 북구 철생동2가 350-9 053-425-5678 박동보 대구보훈병원 외과 대구 북구 철생동2가 350-9 053-425-5678 053-630-7000 3북 영천시 금로동 584-6 054-336-0075 0태규 왜관정형외과의원 경북 형천시 금로동 584-6 054-336-0075 0대규 왜관정형외과의원 경북 참목교 왜관을 때끈리 220-20 054-974-8811 053-256-1275 210급 정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악리학교실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14 053-256-1275 121급 정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악리학교실 대구 중구 당동2가 101 053-420-4833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당동2가 101 053-420-4833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당동2가 101 053-420-1565 053-422-7565 073-422-7565 073-420-17777 21동후 김동환대과의원 대구 달사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073-814	51	김광만	지곡그린의원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054-221-4950
박동보		강창수	강창수비뇨기과의원	대구 북구 태전동 1003-1	053-321-0602
53 이철 동산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84-6 054-336-0075 01대규	52	정태훈	정태훈내과의원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50-9	053-425-5678
이태규 왜관정형외과의원 경복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0-20 054-974-8811 64 이상인 메디하트내과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14 053-256-1275 김인경 경복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악리학교실 대구 중구 당인동2가 101 053-420-4833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대봉동 23-7 파이론빌딩 4층 053-422-7565 65 이명기 로즈마리병원 산부인과 대구 복구 동천동 952-2 053-210-7777 김동환 김동환대과의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6-2 055-641-5513 66 서현호 서현호성회외과 경복 경산시 중방동 851-4 053-616-6800 정한일 에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장기동 556-5 053-663-1141 67 이밍일 나사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장기동 556-5 053-621-5800 박태인 경복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420-4906 68 정덕진 그린내도기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동 2567-8 053-621-6808 이정한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69 문상웅 제일외과의원 경북 인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환국로 석적읍 남율리 737 확진성가 201호 054-977-7575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7/제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신동필성행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642-6700 이용환 이용한내과의원 대구 동구 울하동 133-8 053-640-0012 이용환 이용한내과의원 대구 동구 살등동 177-10 7년동257-782 61 김병준 쉬즈신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살등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처병원 외과 경북 구미처 항목 855 054-450-9738 63 전수열 한대병원 대구 달서구 모음동 1248-9 053-234-755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충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용동 1226-7 054-231-755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충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김병의 닥타본에면 충부외의 대구 당시구 도원동 748 053-7563		박동보	대구보훈병원 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000
54 이상민 메디하트내과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14 053-256-1275 김민경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악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민동2가 101 053-420-4833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대봉동 23-7 파이론빌딩 4층 053-422-7565 01명기 로즈마리병원 산부인과 대구 봉구 동천동 952-2 053-210-7777 김동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당사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56 서현호 서현호성형외과 경북 경산시 중방동 851-4 053-663-1141 053-663-1141 073-1149 대구 달사구 장기동 556-5 053-621-5800 정한일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당사구 장기동 556-5 053-621-5800 경반일 여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당사구 장기동 556-5 053-621-5800 경반입 기량	53	이철	동산의원	경북 영천시 금로동 584-6	054-336-0075
김인경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악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63~422~4833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대봉동 23~7 파이론빌딩 4층 053~422~7565 053~127~7777 김동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당시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053~641~5513 063~422~7565 063~210~7777 185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달시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063~6421~5800 063~641~101 063~420~4906 063~641~101 063~420~4906 063~641~101 063~420~4906 063~641~101 063~420~4906 063~641~101 063~420~4906 063~6420~4906 074~251~7517 075~251~2519 075~2519		이태규	왜관정형외과의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0-20	054-974-8811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대봉통 23-7 파이론빌딩 4층 053-422-7565 55 이명기 로즈마리병원 산부인과 대구 북구 통천통 952-2 053-210-7777 김동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도원통 1436-2 053-641-5513 56 서현호 서현호성형외과 경북 경산시 중방통 851-4 053-816-6800 정한일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장기통 556-5 053-663-1141 57 이양일 나서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용산통 230-12 그랜드엔타워 6층 053-621-6800 병박민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달서구 용산통 230-12 그랜드엔타워 6층 053-621-6800 18 장덕진 그린비뇨기과의원 대구 당구 대경동 2567-8 063-623-6686 이정한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통 1540-2 063-431-7100 59 문상용 제일외과의원 경북 인동시 용산통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포장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통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조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울하통 133-8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운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td>54</td> <td>이상민</td> <td>메디하트내과의원</td> <td>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14</td> <td>053-256-1275</td>	54	이상민	메디하트내과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14	053-256-1275
55 이명기 로즈마리병원 산부인과		김인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833
김동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전호 서현호 서현호성형외과 경북 경산시 충방동 851-4 053-816-6800 정한일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장기동 556-5 053-563-1141 57 이양일 나시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621-5800 박태인 경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당사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621-5800 박태인 경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당사구 원성동 2567-8 053-623-6686 이정헌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당사구 원성동 1540-2 053-431-7100 59 문상용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전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산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원사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당구 번시동 530-5 053-961-8575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당사구 임식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사구 오원동 748 053-630-7178 경존 대구보훈병원 환의과 대구 달사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경혼 대구보훈병원 흥부외과 대구 달사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미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김병의 닥터리메디즈스의원 대구 중구 산덕동1가 39-21 053-423-7533		박순원	박순원S&B의원	대구 중구 대봉동 23-7 파이론빌딩 4층	053-422-7565
정한일 서현호성형외과 경북 경산시 증방동 851-4 053-816-6800 정한일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사구 장기동 556-5 053-663-1141 053-821-5800 박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당사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엔타워 6층 053-621-5800 박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당구 당동 2567-8 053-623-6686 073한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당구 대명동 2567-8 053-623-6686 073한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당사구 월성동 1540-2 053-423-7577 21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한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21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환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21하균 성대연합의원 경북 환동시 봉사동 1274-1 054-252-7582 선동필 성향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078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964-0012 078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078환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동구 실어동 530-5 053-964-0012 071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0754-250-9798 0754	55	이명기	로즈마리병원 산부인과	대구 북구 동천동 952-2	053-210-7777
정한일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사구 장기통 556-5 053-563-1141 57 이양일 나사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사구 용산통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621-5800 박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906 58 장덕진 그린비뇨기과의원 대구 당사구 월성동 1540-2 053-623-6886 이정헌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사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59 문상웅 제일외과의원 경북 인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건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선동필 선동필 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원사동 530-5 053-964-0012 이용환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농구 기세명 현내의 481-9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사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홍부외과 대구 달사구 도원동 748 053-630-7778 65 김임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전평동 630-4 054-475-4500 건병의 닥터컨메디코스의원 경북 구미시 전평동 630-4 054-475-4500		김동환	김동환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6-2	053-641-5513
57 이양일 나시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621-5800 병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906 58 장덕진 그린비노기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동 2567-8 053-623-6686 이정한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59 문상응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977-7575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통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충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임의 <td< td=""><td>56</td><td>서현호</td><td>서현호성형외과</td><td>경북 경산시 중방동 851-4</td><td>053-816-6800</td></td<>	56	서현호	서현호성형외과	경북 경산시 중방동 851-4	053-816-6800
방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906 58 장덕진 그런비뇨기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동 2567-8 053-623-6686 이정한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59 문상용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977-7575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한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충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65 김일규 에바마레너본반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65		정한일	예일산부인과의원	대구 달서구 장기동 556-5	053-563-1141
58 장덕진 그린비뇨기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동 2567-8 053-623-6686 이정헌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59 문상웅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질곡군 석적읍 남율리 737 휘진상가 201호 054-977-7575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61 <td< td=""><td>57</td><td>이양일</td><td>나사렛연합내과의원</td><td>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td><td>053-621-5800</td></td<>	57	이양일	나사렛연합내과의원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2 그랜드엠타워 6층	053-621-5800
이정헌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59 문상웅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질곡근 석적읍 남율리 737 휘진상가 201호 054-977-7575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대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흥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흥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김병익 닥타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박태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053-420-4906
59 문상용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질곡군 석적읍 남율리 737 휘진상가 201호 054-977-7575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충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65 김일규 에바미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건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223-7533	58	장덕진	그린비뇨기과의원	대구 남구 대명동 2567-8	053-623-6686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37 휘진상가 201호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977-7575 054-252-7582 053-964-0012 018한		이정헌	원방보양한의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40-2	053-431-7100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1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1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1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1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흥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1 집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1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59	문상웅	제일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용산동 1274-1	054-822-7577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054-450-9798 0754-20100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형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054-475-4500 건녕식 답데미리소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김하균	석적중앙의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37 휘진상가 201호	054-977-7575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961-8575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053-284-0119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053-630-7568 054-475-4500 기원의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60	이종호	경대연합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481-9	054-252-7582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053-961-8575 이 전명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054-450-9798 이한석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한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이 전국 보험가 도원동 748 053-630-7568 054-475-4500 기념의 막타김메디코스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3-423-7533		신동필	신동필성형외과의원	대구 중구 봉산동 51-1 현대증권 3층	053-426-4700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미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633-7533	61	김병준	쉬즈산부인과의원	대구 동구 율하동 133-8	053-964-0012
7 /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053-284-0119 0한석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한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054-231-7568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이용환	이용환내과의원	대구 동구 신서동 530-5	053-961-8575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흥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62	정태균	대경영상의학과의원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053-742-0100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미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김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기세국	구미차병원 외과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054-450-9798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김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63	전수열	한미병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9	053-284-0119
85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1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김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이현석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054-231-7582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13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64	박경건	대구보훈병원 신경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178
김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공준혁	대구보훈병원 흉부외과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053-630-7568
	65	김일규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경북 구미시 진평동 630-4	054-475-4500
66 조민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719		김병익	닥터김메디코스의원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9-21	053-423-7533
	66	조민현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053-420-5719

편집 후기

졸업 45주년 기념 록키산 여행기를 보내주신 편영식(34회) 선생님과 지부 및 동기회 소식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그 너의 음악과 히틀러' 라는 좋은 글을 보내주셨지만 지면 제약상 이



다음 호에도 많은 소식과 동정이 실리기를 바라며 투고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부 및 동기회 소식을 보내실 때는 행사관련 사진을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서너 줄 정도의 짧은 동정란은 반드시 실어드리니 크고 작은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셋째, 동창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회원문예는 지면 제약상 1쪽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넷째. 105호부터는 소식지 전용 이메일 kpmedal77@hanmail.net으로 투고해주십시오.

좀 엉뚱한 제안을 드리자면 동문들께서는 '수필과 지성 문예아카데미' (또는 네이버에서 '장호병'을 검색해보세요) 같은 곳에 가서 글쓰기를 배워보시기를 권합니다. 힘든 의사도 되고 전문의도 되었는데, 조금만 배우시면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편집자문 이원길 선생님, 변영우 동창회장님, 편집기획사 이포럼 이어진 대표님과 이혜미 씨, 동창회 박은미 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에 공보이사 김인겸

동창회보 105호 원고 모집

동창회보 전용 메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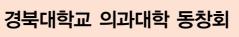
동창회보 전용 메일이 개설되었습니다

동창회보 105호 원고부터는 kpmedal@hanmail.net이 아닌 kpmedal77@hanmail.net으로 보내 주세요.

동창회보 105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책이 칼라로 바뀐 관계로 지부 소식과 기별 소식은 행사내용과 관련 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회원문예는 동창회와 관련이 있는 원고는 2쪽, 동창회와 관련이 없는 것은 편집회의를 거쳐 1쪽을 실 어드립니다. 문예도 가급적 본인사진과 원고관련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회장	변영우(42회)	054)743-264
수석부회장	지용철(43회)	053)630-627
부회장	구본철(38회)	440-205-546
	박노삼(39회)	051)524-2244
	백운이(44회)	053)420-500
	이원길(45회)	053)420-529
	유완식(45회)	053)200-300
	황보경(45회)	031)390-1300
	이 창(46회)	053)746-3232
	차순도(46회)	053)250-750
	강상대(47회)	053)608-702
	김영근(47회)	053)356-000
	신순희(47회)	053)783-360
	김원섭(48회)	053)782-400
	정능수(48회)	054)861-0076
	김종서(49회)	053)352-5124
	송중원(49회)	053)426-5151
	박상운(51회)	053)663-1000
	곽동협(52회)	053)252-240
	백승찬(52회)	052)226-1100
총 무 이사	김문규(57회)	053)420-4876
기획이사	박태인(57회)	053)420-490
학술이사	김신윤(51회)	053)420-563
재무이사	이민석(53회)	053)756-300
공보이사	김인겸(54회)	053)420-483
사업이사	손효돈(54회)	053)588-966
섭외이사	강인구(51회)	053)794-940
장학이사	안기영(50회)	053)422-6222
조직이사	박동원(57회)	053)745-200
정보이사	손효돈(54회)	053)588-966
정책이사	정제명(42회)	053)420-5119
	정만진(45회)	053)792-6425
	박문흠(50회)	053)561-5665
	조병채(52회)	053)420-569
	이민석(53회)	053)756-300
	정호영(53회)	053)420-562
	최동호(54회)	053)766-2114
	이덕희(57회)	053)420-486
감사	김완섭(40회)	053)357-873
	김철수(42회)	053)252-538

동창회비 송금 안내

2012년도 경북의대 동창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납부하신 동창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원회원 : 50,000원

• 근무 및 수련회원 : 40.000원

• 대구 외 기타지역 개원회원 : 40,000원

경북의대 동창회비 온라인 송금

대구은행 054-10-004585 예금주 : 박문흠(경북의대 동창회)

문의처 :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

전화: (053)422-5114, 420-4981

팩스: (053)424-0799

송금하신 후 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송금

송금 온라인 계좌는 **대구은행 149-04-000196-5**

예금주는 경북의대 동창회입니다.

장학기금 송금에 대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실 (053)422-5114로 연락 바랍니다.

회무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101 경북의대 본관 1층

동창회 사무실(우: 700-442)

실장 : 박은미

☎ (053)422-5114, 420-4981 / FAX. (053)424-0799

휴대전화: 010-8986-2550

e-mail: kpmedal@hanmail.net / medal@knu.ac.kr

경북의대 동창회 홈페이지 주소 www.kpmedal.co.kr

경북의대 동창회 '안행' 원고 모집 kpmedal77@hanmail.net

회원 활동사항 및 동문들의 근황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동창회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부 또는 기별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동창회 홈페이지에 링크하겠습니다.

정보이사 손효돈: obgysohn@hanmail.net

82 | 동창희보

제9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2012년 8월, 올해도 어김없이 동창회 골프대회가 열립니다. 꼭 참석 하셔서 골프기량도 겨루시고 동기애도 돈독히 하는 즐거운 날 되시 길 바랍니다.

일시: 2012년 8월 26일(일)

장소: 청도 그레이스 컨트리클럽